

2014년 새해를 주신 해님 아버지, 시간은 흐르고 인생도 덧없이 흘러가지만 해님을 향한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해님 앞에 설 날을 향하여 기쁨으로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기신 일 온전히 감당하도록 날마다 새 힘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셔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월 18일 (토) 제 146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주한인교회 4,150, 주별 1위 CA

2위-뉴욕 3위-뉴저지 작년도 동일...전체적 감소세

본지 '2014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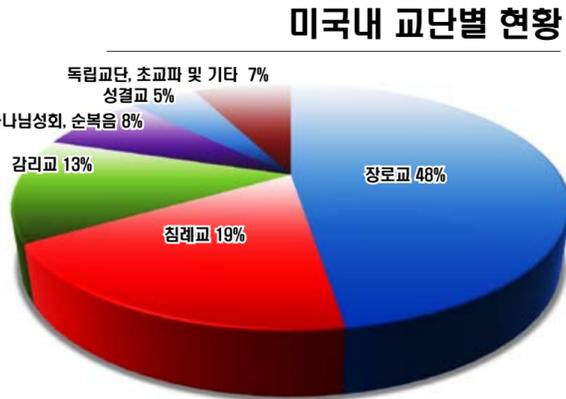
미국내 한인교회 수가 총 4,15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5개가 줄어든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8개국의 한인교회는 1,299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캘리포니아(1,214), 2위 뉴욕(410), 3위 뉴저지(236), 4위 버지니아(202), 5위 워싱턴(196)로 전년도와 비교해 4, 5 순위가 바뀌었다. 지난해 4위였던 일리노이는 7위로 밀려났으며 전년도 5위였던 버지니아가 4위로 한 계단 올랐다.

교회 수는 캘리포니아 50교회, 뉴욕 41교회, 뉴저지 15교회가 감소되는 등 모든 지역의 교회가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6위는 조지아와 텍사스가 177교회로 동일하게 차지했고, 7위 일리노이(171) 8위는 메릴랜드(130), 9위 필라델피아(120)로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주로 나타났다.

미주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한인교회는 78개국에 총 1,299교회가 리스트팅 됐다. 전년도에 비해 9교회가 추가됐다.

해외교회 1위는 예년도 동일하게 캐나다로 394교회, 2위는 일본



(204), 3위 호주(172), 4위 독일(98), 5위 아르헨티나(67)로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 및 교회수를 나타냈다. 6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영국(54)이 차지했으며, 7위 브라질은 순위는 같지만 교회 수는 9교

회가 감소했다.

미국내 교단 별 상황을 보면 장로교(개혁신교 포함)가 1,709교회로 약 48%를 차지했으며 19%를 차지한 침례교(726)가 2위, 3위는 감리교 491 교회(13%), 4위는 하나님성회 및 순복음 계열이 271교회(8%)로 집계됐으며 나사렛 성결교단이 120교회(5%)로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복음주의, 그리스도교회, 독립교단, 초교파, 또 교단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무소속도 다수 있었다.

장로교 중 미주내 가장 큰 교단은 예년과 동일하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로 449교회, 2위는 미국교단인 PCUSA 332교회, 3위는 해외한인장로회(255)가 차지했다. 4위는 미국교단인 PCA가 174교회로 나타났다.

또 장로교 계열의 개혁주의 교단인 CRC와 RCA도 88교회와 39교회로 각각 집계됐다. 또 선교회 교단인 C&MA도 84교회로 나타났다.

'2014 세계한인주소록'에는 이외에 기독교기관, 기독교원, 선교회, 신학교 그리고 기도원 및 수양관 등의 리스트와 함께 교회 웹사이트 주소도 첨부했다.

이번 주소록에는 총 4,687개의 리스트가 수록됐다.

'2014 세계한인주소록'은 1월 중으로 미국 전역에 배부되며 한국에서도 배포된다.

(유원정 기자)

선교로 세계 민주주의 확산

CT, 우드베리의 방대한 연구 끝 결론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보도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극단을 오간다. 지나친 편견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바로 서구 식민주의를 확산, 이식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이자 식민주의의 사도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음이란 이름을 걸고 자신들을 파송시킨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 확장을 위해 일했다는 고정 관념이다.

그러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복음을 통해 개화와 근대화의 물결을 만난 것처럼, 선교사들은 오히려 식민주의에 비판적이었고, 조용한 혁명 즉 변화를 이끌어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면서 한국 교회는 교육과 의료 선교로 인재를 양성하며 한민족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처럼, 선교사들은 지구촌 각각의 파송지에서 조용한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간 것이다.

크리스티안티티데이(CT)는 최근 커버스토리로 "선교사들이 만든 세계(The World the Missionaries Made: They didn't set out to change history. But one modern scholar's research shows they did just that)"라는 글을 통해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세계를 보여준다.

선교사들이 세계 복음화와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했다는 결론은, 기독교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선교가 세계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 했다'라는 가정은 그 자료나 연구가 부족했다. 한마디로, 단편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선교사들이 파송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에 경계하면서 파송 국가의 민주주의 이식과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문헌이나 자료들이 있었지만 이를 집대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사회학교수인 로버트 우드베리(R Woodberry)는 자신이 전공할 학문 영역에서 소명을 발견했다.

그는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학장이자 석좌교수인 J. D 우드베리의 아들로, 현재 노블대학 사회학 교수인 크리스천 스미스 지도하에서 Ph.D 논문을 준비하다가 지구촌 민주주의 확산에 바로 선교사들이 결정적인 역할과 함께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일종의 계시(?)와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

시빌 종교와 같은 미국 종교들에만 관심을 보였던 우드베리는 당장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도서관 자료실로 달려가 1925년부터 모여진 선교사들의 사역록 즉 수없이 세워진 학교들, 병원들, 인쇄소들 그리고 의사들과 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회학을 전공하게 하셨는가를 절감하게 된 순간이다.

Ph.D 학위논문에서 그가 삼정한 연구의 핵심은 근대사 형성에 있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 중의 하나였다. 바로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이 투표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집회를 열면서 안정된 민주주의를 개화시켰던 반면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왜 권위주의적 독재자들의 횡포와 함께 내부적 갈등들을 겪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었다.

<3면으로 계속>



2면

역사적 가시적 구체적 삶의 언어로 표현



7면

아브라함 카이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9면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장로교회)



16면

내 아이는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3. 자폐아의 성장과 미래

2011년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 장로교(PCUSA)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2011년 공동체 시리즈(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를 출간하여 한인 이민 목회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 센터(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를 봉헌하는 주 예수 교회가 2014년 "선교적 교회 세미나(Missional Church Seminar)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제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주제강의※

강의1: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 of Missional Church)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Heart Stream 한국센터(선교사 멘토케어센터) 공동대표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역임(2004-2011)
현,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회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Associate

강의2: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Missional Church and Global Mission)

김종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30년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 학장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MC) 공동의장

강의3: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

(Missional Church and Diaspora Ministry)

배현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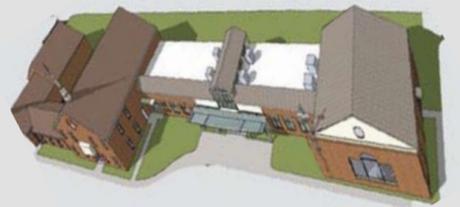
주 예수 교회 담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
미주기아대학(KAFHI) 이사장

강의4: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Congregational Life of Missional Church)

노승환 장로

주 예수 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현장방문※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참여

(Practicum)

- 노숙자 숙박사역 (Caritas)
- 노숙자 식사사역 (Monroe Park Soup Kitchen)
- 빈민촌 주택보수 (Renew Crew / Chesterfield County)
- 인종화합 합창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영상)

일 자 : 2014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 14일(토) 오후 3시
장 소 : 주 예수 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숙 박 : Sheraton Richmond Park South Hotel
등록인원 : 30명
등록비 : \$100 (교재 포함 및 숙식), 선교사(등록비면제)
등록처 : 주 예수 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 주관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CUSA)
- 후원 한인 세계선교 협의회 (KWMC)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560-7500,7509 Fax(804)560-7514



시론

우선순위와 효과적 시간관리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Stephen R. Covey, Roger Merrill, and Rebecca R. Merrill의 공저 "First Things First"란 책이 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시계와 나침반"이란 주제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단지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지를 살피게 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긴급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삶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며, 그 다음은 "상호 의존의 시너지"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에서 일상의 업무적인 관계와 협동의 시너지적인 관계 사이의 차이점을 말한다. 위임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단순한 자원으로 사람들을 보는 대신, 비전 공유와 시너지적인 합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의 역사는 서문 끝에, "이 책을 공부해나가는 동안 당신은 자주 멈추어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볼 것이다. 인간관계를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시간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시간을 쓰는 방식과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이의 불일치를 없애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도전했다.

누구든지 새해를 맞이하면 나름대로 꾸짖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나의 나뭇잎을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시작한다면 나중에 겪게 되는 실수, 후회와 부끄러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신앙적 모습, 교회생활의 모습,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역의 모습 등을 다양하게 성찰하면서, 좀 더 신실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좀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게을렀던 점, 좀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되지 못했던 점 등을 철저히 평가해 본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보다 못한 한 해, 과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한해가 아닌 이전보다 나은 한해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새롭게 계획하고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가되 적절한 시간배정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등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 직장, 사업, 목회생활, 교회의 일, 친구들과의 교제, 건강관리 등,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배정한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일의 효율성도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위임에서 끝나지 않고 비전을 공유하는 일, 협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리더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Hans Finzel이 쓴 "The Top Ten Mistakes Leaders Make"란 책이 있다.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중 "사람을 무시한 업무추진, 권한 위임의 철회, 협력문화의 부재"를 지적했다. 즉 사람을 항상 우선에 두라는 것, 분명한 위임 즉 일을 위임했으면 믿고 맡기라는 것,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협력하여 하라는 것이다. 새해에는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위임하되 믿고 맡기는 신뢰,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간에 협력하여 일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고대 헬라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크로노스(Chronos)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자연적 시간으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돌면 1년의 시간이 지난다. 즉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을 말한다. 반면 카이로스(Kairos)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성 있는 시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되어 신앙과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역사적·가시적·구체적 삶의 언어로 표현

CT, C. S 루이스 사망 50주년...기독교 변증에 끼친 영향과 유산 소개(2)

루이스의 회심을 촉발한 사건으로는, 한밤중에 오랜 시간 동안 J. R. R. 톨킨, 휴고 다이슨과 나의 대화를 꼽을 수 있다. 그들은 기독교, 은유, 신화를 논의했다. 루이스는 아서 그리브즈에게 보낸 편지(1931년 10월18일자)에서 그 대화를 밝혀놓았다. 의미의 질문들, 즉 상상력의 질문들이 그 대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시점에서 루이스가 기독교와 관련해서 갖고 있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상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그리브즈에게 이렇게 썼다. "내가 주저했던 것은...만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의미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일세." 톨킨과 다이슨은 그에게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교리는 하나님이 "보다 적절한 언어로,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처형과 부활로" 표현하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낸 결과물이다. 기독교의 주된 언어는 실존인물이 태어나고 죽고 형언할 수 없이 새롭게 변화돼 다시 살아나는, 실재하고 역사적이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언어다. 루이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독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됐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신들의 이야기에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매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대 신화에는 죽음으로 지상에 뒤틀기를 이뤄내거나 드러내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온다. 예를 들면 곡물 안에 갇힌 새 생명, 일출, 봄의 도래 등이 그렇다. 루이스가 볼 때 이 이교적 이야기들은 "무슨 의미"라고 냉철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이해력을 벗어나는 여러 의미를 암시"하고 있었다.

루이스는 기독교를 원래의 형태인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체계화된 교리로 번역하는 일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신앙에 대한 분석적 입장에서 종교적 입장으로 옮겨갔다.

분석은 말 그대로 "풀어버림"을 뜻하는 반면, 종교는 "다시 묶음"과 같다. 교리는 분석적 해체에서 나

온다. 역사적인 원재료를 추상적인 범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반영해야 할 역사적 재료보다 의미의 풍성함이 훨씬 떨어진다.

이 시점에서 루이스는 돌과구를 찾아냈다. 그는 기독교의 정수는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이지 그것에 대한 서신서의 해설과 적용이 아님을 이해했다. 기독교는 '참된 신화'(여기서 신화는 거짓이 아니

을 믿게 됐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기독교가 참됨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먼저 상상력과 관련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의 '의미 기관'이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이 필요했다. 기독교에 대한 이성적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고차적인 이성 기능이 동의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성은 상상력 없이 작용할 수 없다.

올은지 그런지에도 관심을 보일 것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적 정의나 간략한 예화 정도로는 안 된다. 꼭 잡겨서 읽다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측면을 상상할 수 있는 몰입도 높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루이스는 변증이 요구하는 논증과 추상적 범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면 변증을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고민했다. 세상에 태어나 장성해 가르치다 죽고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시할 방식을 놓고 고민한 것이다. 루이스는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고안해낸 추상적 명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펼치기보다는 여러 캐릭터와 플롯과 분위기가 담긴 이야기가 변증에 더 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증가가 논쟁의 자리에 서게 되면 적수와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언어를 속아내야 한다. 종교 논쟁의 적수는 변증가가 믿고 있는 내용에 담긴 상상력 넘치는 측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변증가는 대학 강단이나 법정 변호석에서 그곳에서 벌어지지



이야기변증은 상상력 활용하되 이성과 연결돼있어야

"나니아 연대기" 픽션 통한 가장 유명한 변증 시도

라 궁극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뜻한다)인 반면, 이교 신화들은 '인간의 신화'였다. 이교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화"다. 하나님의 신화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실존인물의 역사적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야기다. 기원후 33년경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절,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메시아의 이야기다.

이교의 이야기들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진짜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하고 참되다. 기독교는 참된 신화다. 나중에 루이스는 이것을 '사실이 된 신화'라고 부르게 된다. 톨킨, 다이슨과 대화를 나누고 2주 후, 루이스는 기독교가 참된

캐임브리지 취임 강연에서 자신을 '공룡'이라 말했던 루이스였지만, 이 부분에서는 당대 사람들보다 포스트모던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 더 가깝다. 후기 기독교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보다 기독교에 의미가 있으며 허튼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더 어렵다. 기독교의 용어들이 실제로 이해 가능하며 외국어가 아니라

않은 일에 대해 늘 말해야 한다. 변증가가 어떻게 기도, 교제, 성만찬, 성경 읽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봉사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앙의 삶을 하나의 논증으로 바꾸어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모자르트가 교향곡을 작곡하는 대신, 입에 재갈을 문 채 첼관에다 숫자를 써서 자신의 음악성을 입증하려는 상황과 같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식민주의에 비판적 선교사들, 변화 이끌어내

CT, 우드베리의 방대한 연구 끝 결론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보도

(1면으로 계속)

그 물음은 2001년 서부 아프리카를 자료 조사차 방문했다가 풀리지 않게 된다. 우드베리는 토고의 수도인 로메에 있는 토고대학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다. 그 많은 서적들이 서점에 비치되었는데도, 학생들은 오직 필기구만을 구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들이 큰 소리로 읽는 교과서 내용을 조용하게 받아 적는 것이 학생들 수업의 전부였다.

그러나 토고 국경을 건너자마자 보는 광경은 완전히 반대였다. 즉 가나대학 도서관에는 수많은 서적들과 함께 지역 학자들의 연구물까지 비치되었고,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식민주의였을 때 가나에 있었던 영국 선교사들은 인쇄소를 포함한 교육 전반 체계를 확고하게 세웠. 공부를 통한 민주주의 확산과 계몽에 힘썼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토고에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철저하게 제한시켰다. 즉 소수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부여했

치가 감행됐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프랑스 현지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에 까지 보도될 정도였다. 그러나 벨기에가 지배하는 기간에는 반 노예운동이 펼쳐질 정도로 국제적으로 콩고의 식민주의가 문제가 됐다.

의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우드베리는 보다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그는 분석방법(Two-stage least-squares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을 통해, 자신의

유아사망을, 저조한 부정부패, 저조한 문맹률, 교육의 기회(특히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국가가 아닌 시민단체들의 회원 가입율이 많아 경제적으로 평균이상의 발전을 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우드베리는 자신의 스승인 크리스천 스미스가 미국 종교에 있어 개신교의 역할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학계와 함께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14년 동안 한 길만을 위해 달려온 그의 연구결과가 2012년 사회학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저널(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선교적 근원들(The Missionary Roots of Liberal Democracy)"라는 제목으로 실리면서, 가장 우수한 연구 결과라고 4개의 관련 수상들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드베리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바로 불안정하지만 견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들 중의 하나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아직도 더 많은 데이터들을 요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하나님의 손

스웨덴이 낳은 조각가 밀레스는 1874년에 태어나 1967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조각가다. 스톡홀름에 가면 밀레스의 조각 공원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불거리를 선사해주고 있다. 공원 마당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은 1954년에 만든 작품으로 벌거벗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 위에 서서 하늘을 응시하는 모습이다. 본래 예술 작품이란 보고 듣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이 작품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전략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짙게 풍기고 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의 현주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행각으로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것은 곧 인간만 하나님과의 끈끈한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 굴러 떨어지는 소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탈선의 굉음이며 스스로 선택한 지옥행 질주의 기적소리다. 흠을 떠난 초목과 물을 떠난 물고기가 생존이 가능할 수 없다는 원초적 진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생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람은 두 가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에게로의 자유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벗어나는 자유이며 죽음에로의 자유라면, 하나님에게로의 자유는 생명에로의 행진이며 영원을 향한 대장정이다. 주님은 그 길을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라고 하셨다. "군자대로행"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험문행(夾門行)이다. 가기 힘들고 걷기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며 중단해선 안 되는 길이 의의 길이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질주하던 역사의 붕괴를 슬허하게 지켜보았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인의 노래처럼 주의 신을 떠나 갈 곳은 우주 공간 어느 곳에도 없다. 밀레스의 작품이 설명하듯 인간은 벌거벗은 나신(裸身)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신학의 오류가 신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 두려는 데 있다면 과학 문명이나 지식의 오만은 과학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데 있다. 이런 정황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없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라 롯을 그 없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다.

하나님이 손을 없으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종국을 맞게 되고 만다. 권력도 영광도 부귀도 성공도 땅바닥에 쏟아져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며 보금자리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이다.

선교지 정책 따라 민주주의 확산과 독재갈등으로 나뉘어져

고,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토고에서는 교육을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가나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져 있다.

콩고에서 발견한 사실 역시 우드베리의 고민을 덜어주는 계기가 된다. 콩고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식민주의를 경험했다. 그런데 프랑스 치하에서는 정글에서 고무를 추출하기 위해 잔인하고 무자비한 착취를

그 이유는 바로 벨기에가 지배하는 당시, 콩고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 선교사들이 콩고 현지에서 벌어지는 식민정책의 참담한 인권유린 상황들을 사진에 찍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학문 영역에서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자료들을 통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

가설을 입증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존 템플턴 재단을 통해 "종교와 사회 변화" 연구를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받아 50명의 연구원들을 고용해 2005년 텍사스대학 사회학과에서 이를 전담하게 된다.

결론으로, 우드베리는 "과거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요한 역할들을 했던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건강과 위생, 낮은

구하면서 우드베리 교수의 결론을 비하시키고 "함량부족"이라고까지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나갈 선교를 통해 100년 후에 우드베리 교수의 연구결과가 더욱 더 분명해질 것이다. 복음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역사적 가시적 구체적 삶의 언어로 표현

(2면에서 계속)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한 "기독교 변증가가 감수해야 하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의 의미다. 신앙의 삶은 그것이 가진 원래의 조건대로, 다시 말해 실제 사람이 실제 시간에 실제 장소에서 구사하는 언어와 '삶'으로 전할 때 가장 잘 전달된다. 말보다 행동이라 했다. 신앙을 변증의 말로 전환해야만 한다면 공판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사용하거나 요한복음에 실린 강력한 단어들(말씀, 빛, 생명, 길, 물, 영광, 포도나무, 떡)처럼 울림이 크

고 함축하는 바가 많은 말들을 쓰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단어들은 신앙의 의미심장함을 추상적인 논증보다 훨씬 잘 전달한다.

그래서 루이스는 명제적인 논픽션 변증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픽션을 통한 그의 가장 유명한 변증 시도가 바로 "나니아 연대기"다. 이 이야기들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전달함에 있어 그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 큰일을 이뤘다. 채드 웰시는 루이스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 "회의자들의 사도"(Apostle to the Skeptics)에 이렇게 적었다. "루이

스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친 이 책들을 통해 기존의 어떤 변증서보다도 더 유창하고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고 있다."

삶은 논증보다는 이야기에 가깝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기독교를 논증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이야기가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물론 상황은 늘 동일하지 않기에 교회에는 두 방법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과 재능에 따라 다른 소명을 받는다. 그러나 명제적 변증은 최대한 구체적이 되어야 하고, 이야기 변증은 그저 가상의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야기 변증은 상상력을 활용하되 '자연적인 진리의 기관'인

이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명제적 변증과 시적 변증 모두 그 자체를 넘어 성숙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이야기를 가리킨다. G. K. 체스터턴이 "영원한 인간"(The Everlasting Man)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야기가 됨으로써 로망스를 향한 신학적 추구를 만족시키고 "참된 이야기가 됨으로써 진리를 향한 철학적 추구"도 만족시키는 바로 그 이야기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와 철학이 만났다. 의미와 진리가 입 맞추었다. C. S. 루이스는 신앙이 상상력과 이성 모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이해했는데, 이는 지난 세기에는 보기 드문 통찰력이었다.

총신 콘서트 콰이어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는 '총신 콘서트 콰이어'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총신대학교를 대표하는 합창단입니다. 1989년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대학 합창제와 정기연주회, 약 3년을 주기로 하여 5회에 걸친 해외 순회 연주 및 국내 순회 연주를 통하여 그 음악적 기량과 영감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 지휘 이기선 교수

● 일시: 2014년 1월 26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퀸즈장로교회 (17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이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담임목사 김성국
교회전화 71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신년 계획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계획을 설계해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힘써 일할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반성하면서 새해

에는 실패 없는 성공을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이민초기 힘든 상황 속에서 고국으로 다시 귀환할 것을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성향, 신앙 생활 풍도, 신앙수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상이했기에 실망으로

가득한 마음에 장로님들에게 귀환을 말씀드렸습니다. 짐을 꾸리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최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일찍이 일본유학을 하시고 고위공무원으로 오랜 동안 일을 하시고 도미해서 본 교회 장로님으로 제직하고 계셨습니다. 낙심하며 실망 중에 있는 저에게 일본유학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본유학시절 장로님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의 친구는 공부를 받았없이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가정이 가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부모는 물장사를 하셨는데 옛날 서울 판자촌 일명 달동네에 물지게로 물을 배달하여 그것으로 아들 유학비용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받았을 거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학업에 전념하였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가정은 부유해서 넉넉히 유학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유학자금으로 친구들과 방탕하게 즐기며 노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졸업 때가 되었습니다.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장학금과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보조도 약속 받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원을 졸업하면 기업에서 그를 영입하기로 약속까지 받게 되었으니 가난한 집에 그 광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친구는 하루 빨리 부모님께 돌아가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은혜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집 친구는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허구한 날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보니 학점이 모자라 졸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 저제나 돌아오길 기다리는 부모님께 차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헤매다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엄 목사님 이 이민목회는 가난한 집 아들같이 뛰는 게 많아" 고함이 평안도이신지라 사투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나의 친구처럼 본인도 일어나고 집도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목회 다 그렇거니 하고 힘내시라야 엄 목사님!"

장로님의 말씀이 이민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국에서의 목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성공적인 삶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현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성공적인 기억 때문에 현재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과거의 불행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을 아프게 했던 기억, 손해 보게 했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을 모든 실패의 일들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날은 여성교회 총무가 저에게 와서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박 권사님이 저에게 '최선을 다하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래요?" 경성도 분이신 박 권사님은 노인치매 증상이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기에 권사님의 말씀이 여성교회 총무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래이!" 소중한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뒤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향해 있는 이 길을 걸으며 행복한 한 해를 되길 원합니다.

푸 / 른 / 초 / 장

김승희 목사

(뉴욕초대교회 담임)



양을 키우는 목장에서 8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립 켈러 교수가 양의 속성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양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들이 받는 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송곳니와 찢는 발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시력은 -10입니다. 50cm 이상은 볼 수 없고 바로 앞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에게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을 목자되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때때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쉼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양 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게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

자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곧 우리의 목자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 곧 말씀만 따라가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 생활이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단한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근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닥쳐와도 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일 그 근심과 슬픔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제가 안고 산다면 저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말하기를 수많은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지만 누구를 불러서 함께 차를 마시는가는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이라는 비유를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발생하고 생각이 떠오르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 것은 자

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저녁에 눈이 온다고 하면 눈 치울 일과 아침에 출근 길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차피 걱정한다고 눈이 내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면 하얀 눈이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누가복음 6

장 48절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레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온 것은 바로 1996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가장 곤경에 처한 때였습니다. 목회적으로도 힘들었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가난하고 궁핍했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성경구절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왜 궁핍하게 사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아!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

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베풀지 못하고 사는가 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누구에게 베풀 임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베풀지 못하고 살다가 가진 재산을 내려놓게 되고, 결국 남은 재산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적고 많음을 떠나서 환경이 되든 안되든 주고 베푸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매일 가계부를 기록합니다. 저의 가계부 지출부에 첫 번째 항목이 구제비입니다. 주변에 뜻하지 않게 성도들 선교사님들 동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와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왜 구제를 하나? 예수님이 주고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한 마디로 표현하면 '주는 삶'을 살다가 가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음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미국에 사는 사람은 현재 사는 인구 중에 10% 해당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다녀본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주고 베풀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뉴욕교회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하게 되었고 그래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기독교단체가 받기보다는 베푸는데 더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베풀고 주기를 잘하는 것으로 소

문나 있습니다. 몇 주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역으로 정하고 선교센터와 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도미니카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로 도미니카 수도 산토도 밍고에서 십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최상민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도미니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종합 건강검진센터라는 것을 알고 산토도 밍고에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건강검진센터를 설립 중인데 올해 9월이면 완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그가 뉴욕교회회장인 제게 부탁한 말입니다. 5월 건강검진센터가 완공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뉴욕에서 목회하느라고 수고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 마흔 명을 초청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에서 3박4일 동안 편안히 쉬고 오실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1인당 1,500불이 들고 총 6만불의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건강을 돕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것을 베풀고 주시고 가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며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

(요한복음 10장 1-5절)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일-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일-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Orthopaedic Capital Cen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March 31-April 4 (3월 31일 -4월 4일)
IM 8300 Islam(이슬람)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Korea

• April 7-11(4월 7일 - 11일)
DI8220 Clu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iberius Rata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결심을 한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살거야. 이번에는 정말이다." 새해마다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시작한다.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1월말이 되면 이미 옛날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풀이 죽는다.

각각각종에서 새해결심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새해결심들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타워지는 새해에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잊어먹는 새해결심 10가지를 보도했다. 잘 안 지켜지는 10대 새해결심은 체중감량, 금연, 새로운 것 배우기, 건강식과 다이어트, 빚지지 않고 저축하기, 식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새로운 장소들로 여행, 스트레스 안받기, 자원봉사, 술 탐미하기 등이었다.

들은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새해의 결심을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결심을 하는가? 북미주에 사는 성인들의 절반 이상이 새해결심을 한다. 그중에 60%는 6개월 만에 그만두고, 81%는 24개월 이후 그만둔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의 변화를 이룬다는 말이다.

새해결심의 종류도 다양하다. 자기발전이나 교육과 대한 결심은 47%, 체중감량은 38%, 돈에 관계된 결심 34%, 관계에 대한 결심 31%이다. 재미있는 것은 새해결심을 하는 비율은 20대는 39%, 50대 이상은 14%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새해결심을 하는 숫자가 줄어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새해결심이 지켜지

지 못했던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따라서 금년의 결심 또한 실패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으로 기대치가 낮아져서일 것이다.

새해결심은 얼마나 오래갈까? 바로 포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첫번째 주까지 유지한 사람은 75%, 2주까지는 71%, 한달까지는 64%, 6개월이 지나면 46%가 그래도 새해결심을 유지한다. 따라서 새해결심을 비록 끝까지 이루지 못해도 새해결심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결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이고 다람쥐 쳇바퀴 결단이라는 생각에 부담감을 갖는다. 어차피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인데 왜 새해결심을 하느냐 반문한다. 그렇다면 이런 새해결심으로 일어나는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새해결단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다. 그 해답은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새해결단을 하려면 먼저 우리는 '자아self'에 대한 생각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자아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아는 반대방향으로 도망간다. 예수 없이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과연 나는 진정한 자제심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 자아에 끌려다니는 운명에 억매어 있는가? 성경은 나 자신을 통제하는 획기적인 길을 보여 주신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진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도착하시면 먼저 나의 자아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과 '주' 안에 있는 '나'와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변화된 정체성을 갖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옛사람인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바로 승리의 열쇠가 된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죄를 이기시고 공구적인 승리를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초자연의 역사이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주시려고 오셨다. 옛 자아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된다. 우리의 태도가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정신집중이 파괴된다. 우리의 옛 자아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 안의 나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갖는다(골1:27).

보통의 새해의 결심은 나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다' 설득함에 달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빌4:13)'이다. 내게 능력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평화를 누리며, 풍성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새해결심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해 결심 2014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사회적 리더들도 새해결심을 한다. 새해결심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자들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좀 더 잘해주기"라고 했다. 국민에게 좀 더 잘해주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기독교 리더십의 전문가인 Justin Lathrop 목사는 목회자들이 해야 할 결심 8가지를 추천했다. 1) 리더십에서 영향력을 주관점으로 삼으라 2) 비판에 굴하지 말라 3) 투명성을 가지라 4)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라 5) 성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라 6) 비전을 등한시하지 말라 7)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 8) 균형을 찾으라 했다.

새해결심을 하는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고대의 바벨론 사람들은 새해에 빌려왔던 물건을 되돌려주며, 빚을 갚고, 신들에게 약속을 했다고 한다. 로마 사람들은 Janus 신에게 약속을 하고 1월의 이름을 January 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은 중세의 기사도에서 찾는다. 중세의 기사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마지막에 구운 공작 위에 손을 얹어서 다음 한해동안 기사도를 따를 것을 충성 맹세했다. 유대인들은 새해의 나팔절, 그리고 이어오는 대속죄일 음키페에 지난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 많은 성도

지 못했던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따라서 금년의 결심 또한 실패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으로 기대치가 낮아져서일 것이다.

새해결심은 얼마나 오래갈까? 바로 포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첫번째 주까지 유지한 사람은 75%, 2주까지는 71%, 한달까지는 64%, 6개월이 지나면 46%가 그래도 새해결심을 유지한다. 따라서 새해결심을 비록 끝까지 이루지 못해도 새해결심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결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이고 다람쥐 쳇바퀴 결단이라는 생각에 부담감을 갖는다. 어차피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인데 왜 새해결심을 하느냐 반문한다. 그렇다면 이런 새해결심으로 일어나는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새해결단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다. 그 해답은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새해결단을 하려면 먼저 우리는 '자아self'에 대한 생각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자아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아는 반대방향으로 도망간다. 예수 없이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어느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깨닫고 배우게 된다(빌4:12).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옛 생활은 나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는 생활이었다. 내 자아가 원하면 그것을 갖는다. 그 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도록 계속된다. 갈수록 욕심이 더 커진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의 왕좌에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길이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죄용서를 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쳐흐르는 길이다.

반면에 우리가 나의 자아를 다시 왕좌에 앉히려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새해결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전적인 변화이다. 오직 이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함에 있다. 빛되신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

잘못된 자아를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 진화론적인 기대를 갖고 더 많은 나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헛된 소망을 준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옛자아가 속도를 늦추지 않는 악독한 노예감독임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자아에 대하여 작별인사를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새생활을 영접해야한다.

새해결심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결단과는 다른 것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길 원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눈짓 하나, 손짓 하나, 얼굴 표정하나, 음성의 톤의 변화도 놓치지 않고 보든.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걸음마를 내딛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실천하는 한걸음 한걸음을 걷고 싶다.

2014년도의 새해결심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소원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새해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1:1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셨는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과연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의 이희은

A: 사울에게 우리주님이 찾아오시자 핍박자요 종교 강파였던 사람이 대 사도 바신년에 말씀을 읽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

말씀 즉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는 말씀이 신약시대에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오시기전 주전 6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이었습니다. 로고스가 그 철학의 골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던 모르던 로고스라 하면 "아 신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를 "초월한 존재이면서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내재적인 신적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한 데는 다분히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말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해줄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다. 예수그리스도가 로고스이고 그분이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로고스라는 말 표현법을 빌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안보입니다. 내가 아무 말을 안하면 내 마음이 빨간지 노란지 시커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일차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4차원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분의 사상과 표현을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둔다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썩지 않는 씨 즉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쁜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씀으로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느냐가 문제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자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교육전도사 청빙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는 유년부 어린이들의 신앙과 교육을 담당할 part-time 혹은 full-time 교육전도사를 청빙합니다.

- 주요 사역내용:**
- 1) 주일 예배 및 활동/행사 인도.
 - 2) 교사 교육/훈련 및 모집.
 - 3) 어린이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

- 자격요건:**
- 1) 인가된 신학교 졸업 또는 재학생.
 - 2) 이중언어 가능한 분 (한국어/영어).
 - 3) 동 사역에 경험이 있는 분.
 - 4) 합법적으로 사역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jang208@hotmail.com 또는
Attn: The Rev. Philip Y. Jang (Résumé)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마감일> 2014년 1월 31일 (금)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시애틀연합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영 어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_____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_____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수단의 카바비쉬(KABABISH)



카바비쉬족은 약 19개의 부족과 소규모 하위 부족들의 연합으로 공동 문화를 공유하며 "나지르(nazir)"라고 하는 단일한 족장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 부족들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조상 대부분은 아라비아 출신이다. 언어는 카바비쉬어 또는 마쉬리키-바다위어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바비쉬족은 읽거나 쓸 수

없다. 카바비쉬의 "다르"(dar, 영토)는 수단의 북부에 위치해있으며, 다른 유목민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가축 떼를 끌고 사막을 떠돌며 가끔 있는 모래폭풍 후 자라는 목초를 찾아다닌다. 그들은 복잡한 이동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계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가축들이 다른 장소로 각각 흩어진다. 이들은 여러 형태의 가축들을 길러서 팔아 곡물이나 소금, 차, 설탕, 옷, 대추, 조미료, 금속제품과 같은 필수품을 구한다. 나타는 가장 중요하며, 유목민들에게 주식 이 되는 우유를 제공해주고 고기와 텐트를 만들 재료가 되며 사막

의 교통수단이 된다.

삶의 모습

카바비쉬족은 "디카"(dikkas)라고 하는 캠프에 사는데 낙타털로 만든 지붕에 면을 둘러서 텐트를 만든다. 텐트 안에 가축과 양모 장신구를 치장한다. 기본적 가구는 아자줄기를 가축천으로 묶어 만든 2인용 침대가 있으며 지면에서 1피트 정도 되는 곳에 못을 박아 걸이 놓는다. 텐트 장식물조차도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전통에 따라 아랍인들은 매우 호의적이며 항상 손님을 잘 접대한다.

남자들은 낙타 떼를 이끌고 사막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여자들은 아이들은 디카의 집에 머무른다. 여자들은 밭을 가꾸고 아이들은 들에서 놀며 집의 낙타를 부리고 염소와 양이 경작하는 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킨다. 카바비쉬의 아이들은 걸을 수 있는 나이

가 되면 가축 떼를 돌본다. 그들은 수줍고 내성적이다.

사막 생활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카바비쉬 남자들은 왼쪽 팔에 칼집에 단검을 차고 다닌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권총이나 라이플총을 휴대한다. 그들은 자신과 부족들을 강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밤에는 깊은 잠을 자서는 안된다. 주식으로는 낙타의 젖과 차를 섞어먹으며 그들 중 누군가 사막의 동물들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생긴다면 고기도 먹을 수 있다. 각 사람들은 다목적의 캔버스 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 깔고 앉을 자리나 텐트, 동물에게 물을 주기 위한 물통, 그리고 건조된 미 같은 무거운 것을 운반하기 위해 어깨에 메는 삼각건이 될 수 있다.

1960년대 이전에 한 부족이 소 유한 가축의 수는 물을 얻을 수 있

는 능력에 따라 제한됐다. 그 후 정부는 새로운 우물을 파서 가축들이 잘 성장하고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불행한 것은 목초지가 더이상 많은 수의 동물을 먹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강우량이 줄고 있어서 목초지가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많은 목자들이 그들의 가축을 상실했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됐다.

신앙

전통적으로 카바비쉬족은 수니파 무슬림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다지 종교적이지 아니며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다.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이 되는 의무사항 중 하나는 무슬림이 하루에 5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카바비쉬족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정

결의식은 생략되거나 완전히 무시되며 물 대신에 모래를 사용하기도 한다.

카바비쉬족 중 극소수만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문자를 마력의 원천이라고 여긴다. 파키(Fakis)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부적을 만들어 돈이나 가축을 받고 부족사람들에게 판다.

필요로 하는 것들

수단에 있는 여러 종족들은 문화와 생활양식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적 종족적 정체성을 자부하고 있다. 가까이 카바비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친 유목생활을 이내해낼 수 있는 동성애자 풍부한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맹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교사도 또한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2014년 미국교회 트렌드는?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티비투데이(CT)와 크리스천포스트(CP)가 2014년 미국 기독교계의 트렌드를 정리했다.



◇멀티사이트 교회=뉴욕 맨해튼의 리더마장로교회는 주일마다 3곳에서 8번 예배를 드린다. 웨스트사이드의 교회 건물에서 4번, 이스트사이드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번, 그리고 맨해튼 중심부의 구세군 건물에서 2번 더 예배가 열린다. CT가 지난해 미국의 100대 대형교회를 조사한 결과 88곳이 이처럼 여러 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CT는 새해에도 이 같은 멀티사이트 교회가 계속 늘어나면서 하나의 초대형교회에 모이는 '메가 처치' 현상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 예배처소가 하나의 교회로 독립하는 교회 개척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회 건축의 변화=CT는 또 교회 건축에도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970년대부터 도입된 초현대식 대형건물 건축 디자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00석이 넘는 규모의 대형 예배당보다는 1000석 이하의 중간 규모에 좀 더 합리적인 디자인의 건축을 시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CT는 전했다.

◇오순절과 교회의 부흥=남미와 아시아에서 시작된 오순절과 교회의 부흥이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강력한 성령 체험과 열정적인 예배를 특징으로 하는 이 같은 교회의 흐름은 오순절교단을 넘어 타 교단에서도 카리스마적인 설교와 예배를 강조하는 흐름과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를 내세우는 '제3의 물결' 교회들이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고 CT는 진단했다.

◇기독교 영상 콘텐츠=지난해 미국의 역사 전문 방송국인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송한 미니시리즈 '더 바이블'이 뜻밖의 인기를 얻었다. '더 바이블'의 흥행

에 자극 받은 미국의 영상 산업이 올해는 영화와 TV를 통해 기독교 관련 작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CP는 예상했다. 이미 관련 영화가 기획 단계에 있고, 'A.D.'라는 새로운 미니시리즈가 새해에 방송될 예정이다.

미국인 4명중 3명 "예수 동정녀 탄생 믿어"

미국인 4명 중 3명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3-8일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3%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답했다고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특히 무신론자 중에서도 32%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 크리스마스를 단순한 휴일로 생각하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50%는 성경 속 예수 탄생의 기적을 믿었다.



퓨리서치센터의 그렉 스미스 이사는 "1년 전 조사에서 무신론자의 18%가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결과"라며 "비기독교인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뿐이지 종교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답변은 성별과 나이, 인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여성(78%)이 남성(69%)보다, 30세 이상(76%)이 30대 미만(66%)보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더 확신했다. 흑인과 백인은 각각 90%와 71%가 '동정녀의 잉태'를 믿는다고 답했다. 개신교인 중에서는 87%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으며,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이 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가톨릭 교인은 86%였다.

미 시장 '성경의 해' 선포 동등 권장

미국 소도시의 한 시장이 올해를 '성경의 해'로 선포하고 시민에게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나섰다. 3일

(폭스뉴스와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 플라워 마운드의 톰 헤이든 시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2014년을 '성경의 해'로 선언하며 "모든 시민이 성경에서 삶의 원칙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그는 "미국 독립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며 "시민들이 자비와 도덕성 등 성경적 가치를 되찾게끔 격려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헤이든 시장은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성경과 묵상을 제공한다는 계획과 시민들이 하루 20분을 할애하면 1년 동안 성경 1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다. 마이크 커코페트릭은 "시에서 제공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라며 좋아했지만 커트 오턴은 "우리는 시장을 뽑았지 영적 지도자를 선출한 게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성경의 해'는 시민들이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고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자는 권면을 담은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1983년)과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2012년)가 '성경의 해'를 공표한 적이 있다.

'스파게티 괴물' 도 허하라...미, 사탄동성 논쟁 시골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 주가 주 의사당에 사탄의 조각상을 세우는 문제로 극심한 진통에 빠졌다. 악령을 송배하는 종교 단체인 '사탄 템플'이 의사당 내 설치할 요구하는 사탄 기념물의 디자인을 공개하자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와 시민단체들까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각종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에서 사탄을 모시는 종교는 안톤 라베이(1930-1997년)가 1966년 샌프란시스코에 세운 '사탄교회'를 위시로 여러 곳에서 생겨나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남부 '바이블벨트'의 한 축인 오클라호마에 사탄 기념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2년 지역 기독교계와 집권 공화당이 의사당에 심계명 비를 세운 데서 비롯됐다. 그러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들도 자신들의 상징물도 의회에 세우게 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잇따랐

다. 8일 AP 통신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청원을 낸 단체 중에는 2005년 창시된 것으로 알려진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 등 신종 종교 외에 동물권익보호단체도 포함돼 있다.

하늘을 나는 국수 괴물이란 뜻의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는 스파게티 귀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종교로, 이번 사탄 논란 덕분에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스파게티괴는 먼가락이 세상과 인류를 구하고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국수를 던져 물을 떨어낼 때 쓰는 채 등 주방기구를 신성시한다. 이슬람교 신자가 배일을 머리 에 쓰듯 국수채 등을 머리에 뒤집어쓰는 게 그들의 상징이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최대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대(ACLU)는 다른 종교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의회를 상대로 심계명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를 틈 타 신종종교 중에서 그나마 세력이 큰 사탄 교회도 끼어들어 갈등을 부채질했다. 사탄템플이 공개한 상징물은 2m 정도 크기의 조각상으로, 큰 날개와 머리에 뿔이 달린 염소의 얼굴을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악마와 그 좌우에 미소 짓는 아동에서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사탄템플 측은 이 조각상은 사탄니즘을 대표하는 동시에 의사당을 찾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사탄의 무릎에 앉아 영감을 얻고 묵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탄상에 대해 공화당과 기독교계는 "미치광이들의 수작에 놀아나는 안된다"며 의사당 측에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시애틀 '첫 동성애 시장' 취임

시애틀의 첫 동성애 시장이 6일 선서식과 함께 집무에 들어갔고 시의 첫 사후주의 시의원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시청에 수백명의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에드 머리 시장과 사마 사와트 시의원의 선서식이 열렸다. 이날 선서식은 워싱턴 주지사를 역임한 게리 락 전 주중대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머리 시장은 "오늘 행사는 개인의 정치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열을 초월한 시의 가치와 함께 특별한 진보유산을 물려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머리 시장은 한인 김혜옥 씨를 부시장에 임명할바 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5)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카이퍼의 교회개혁의 과정

먼저 화란 국가교회의 형편을 살펴보자.

화란교회가 국가교회로 된 것은 1816년이였다. 국왕 윌리엄 1세는 칙령으로 화란의 모든 신교 교회를 국가교회로 바꾸었다. 그렇게 되니 교회의 개혁주의적 구조나 행정보다는 정부 주도하의 총회가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 국가교회를 우리는 켈신(Hervormed Kerk)라고 부른다. 물론 이 교회도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을 채택하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개혁주의적 표준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 이런 화란국가교회가 1852년에 와서 새 헌법을 만들고 교회가 다소간 국가종속적인 성격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화란의 국가교회는 1816년에 이미 개혁 교회의 순수성을 잃었고 그 후 60년 동안 점점 세속화 되어갔고 자유주의신학으로 기울어졌다. 그동안 개인이나 단체들이 교회 정화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했으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국가교회는 성도가 화란 전체 인구의 절반이나 등록되어있었지만 그 교회는 합리주의 사상으로 병들어갔고 종교적 자유주의가 대

의 신학부, 목사, 학교 등은 총회를 전담시켰다. 물론 그중에서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 이 상황에서 카이퍼는 교회의 개혁이 시대적인 사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1878년 이

후로 카이퍼는 명예목사가 되었고, 그 후 암스테르담에서 그를 장로로 임명했다(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임목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1860년 이후 화란국가교회의 목회자들은 흐로닝겐학교(Groningen School)들의 사주로 완전히 자유주의로 돌아섰다. 특히 부스켄 후트가 쓴 책 "성경에 관한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 유명했다. 이 책은 1858년에 출판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성경의 진정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실제로 후트는 화란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입

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 비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세속주의적으로 변질되어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미 현대주의의 대변자였던 알라드 피어슨(Allard Pierson, 1831-1896)의 영향이 컸다. 그는 다른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부정하고 과학적, 합리적인 잣대로 성경을 파괴했다. 피어슨은 일찍이 부흥운동(Rev'eiil)의 가족에서 태어나 로델담의 불란서 개혁교회의 목회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처음에 이성보다는 종교적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신적 사람의 모델로만 선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 후 피어슨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자가 되어 교회를 떠났고 실제로 기독교 신앙에서 떠났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오류를 지적한다면서 반 기독교적 행동을 했다. 물론 피어슨의 이런 태도는 그 자신의 사상이기 전에 이미 유럽 각 나라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던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기도 했지만 피어슨의 발언들이 화란 국가교회의 현대주의와 세속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1883년 화란국가교회는 목사후보생들의 서약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후보생이 각자 알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정신과 고백 내용을 지키면 그만이라고 해버렸다. 그러나 전통적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성

소(당회나 노회)가 기준을 정해놓고, 진심으로 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개혁주의적인 각 교회제직회는 즉각 네 명의 위원을 선출해서 가능한 한 빨리 총회결정에 반대하도록 결집할 것이며, 총회가 이를 취소하도록 전국대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암스테르담 교회재판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국모임을 주도하고 목회자의 서약 즉 연합의 삼형식(Three Forms of Unity)을 찬동해야 참석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하자고 제안했다. 카이퍼의 이런 교회정치적 결단은 성공적이었고 국가교회의 총회의 결의를 뒤엎었다.

특히 카이퍼는 1883년 교회개혁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는

살피면 카이퍼의 교회개혁의 의지와 원칙과 방법을 알 수가 있다. 카이퍼는 이 책에서 도대체 교회개혁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교회의 건실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생활 전체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봉사를 바로 해야 된다고 했다. 또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실제로 다스리게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의 도구(Instrumenteel)로 쓰임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새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이며, 교회는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참된 교회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줄 알고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의 변질은 여러 가지에서 오는데, 회원 변질, 직분자의 사명 변질, 신앙고백의 변질, 훈련의 변질, 구제의 변질, 예배의 변질, 설교의 변질, 당회의 변질 등 여러 가지 변질을 예로 들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병든 것도 있지만 거저된 신학의 사상으로 교리와 신앙이 변질되어진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영적각성으로 교회는 개혁될 수 있고, 회개를 통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고 성령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은 개혁교회의 원칙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개혁해나가기에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은 개혁주의 신앙을 사수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전달해서 화란국가교회 안에 이미 교회개혁의 분위기는 무르익게 되었다.

이메일: skc0727@yahoo.com (다음호에 계속)

1883년 논문 통해 교회개혁 의지와 원칙과 방법 제시 “교회개혁은 개혁교회 원칙인 하나님말씀이 중심돼야”

경의 무오성을 믿는 것은 생각되었

다. 이런 상황을 두고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했다. 바로 그때 카이퍼는 헤라우트지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개혁이 되어야 할 것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카이퍼는 국가교회가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목사 후보생들의 서약을 생각한 것은 일종의 유희정책에 불과한 세속주의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카이퍼는 이 새로운 약을 받아하고 교회의 신앙고백을 수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선포했다. 또한 카이퍼는 교회재판

이 책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400주년 탄생일에 개혁주의 아들들에게 헌정한다고 되어있다. 이 책은 카이퍼의 교회개혁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일반원리(Algemeene Beginselen), 둘째는 교회의 건실한 기초에 관해서(Van de Rechte Formatie der Kerk), 셋째는 교회의 변질(Van De Deformatie der Kerken), 넷째는 교회의 개혁(Van de Reformatie der Kerk)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칼럼 음악목회 (20)

명곡과 계절 그리고 인생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매년 12월이면 많은 교회 찬양대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준비하여 음악예배로 드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LA Master Choral이나 Pacific Choral같은 전문합창단들은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12월이면 여러 버전의 '메시아' 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르코 스타일의 메시아나 또는 모차르트 버전 등 그리고 객석에 참여한 청중이 함께 부르는 Messiah Sing Along도 매년 빠짐없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극장에서 고난주

간에 초연되었으나 후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감절에 주로 연주되어왔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탄생 그리고 수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생애와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 성탄절이나 부활절 어느 계절에도 상관없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이지만 특별히 성탄절 절기음악처럼 12월에 많이 연주가 되어 마치 성탄절 음악의 대명사처럼 여겨왔습니다.

이 곡은 헨델이 1742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그해 4월12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초연된 이래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 모든 처소에서 매년 연주되어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음악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문화가 바뀌어도 진리가 변하지 않듯이 많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매년 들어

도 또 듣고 싶은 곡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곡을 가리켜 '명곡'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세대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갖는 추세에 비하면 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반듯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교회음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와 같은 곡을 경홀히 여기고 그저 세대가 변했으니,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화와 음악을 추종하며 CCM이 마치 현대교회음악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교회음악의 본질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급진적이 아니라 편견에서 오는 목회자의 견해에 의한 결정으로 갑자기 교회가 교회음악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찬양대도 해산시키고 오직 CCM만을

세우는 목회자들에게 진정한 교회음악의 가치를 바로 찾도록 소망을 가져봅니다.

문화적으로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면 떡국이 아니라 적어도 반드시 두 곡의 명곡을 듣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곡은 바로 헨델이 작곡한 '메시아'와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환희'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화인의 척도를 가늠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인생의 철학적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헨델은 젊어서부터 영국의 궁정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정에서 해임되고 인생의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으며 57세에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심과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결

을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토벤은 1824년에 제9번 교향곡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완전히 청력을 잃고 음악가로서는 가장 불행한 시기에 이 곡을 쓴 것입니다. 이 곡은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그가 죽기 전 이미 곤고했던 인생을 마감하고 환희로 가득찬 천국을 바라보며 제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환희의 송가"로 부제를 달아 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심오한 음악철학의 소유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그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은 '악성' 즉 음악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년음악회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연주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환희'와 헨델의 '메시아'를 듣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셨다면 CD를 찾아 다시 듣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연락처: (714)699-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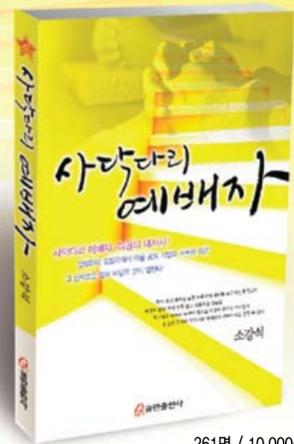
뚝이 찢긴 배처럼 표류하는 혼란과 목마름의 시대
폐선의 절망 속에 상처받고 신음하는 현대인들
2014년 우리의 삶을 패배에서 승리로,
방황에서 꿈으로 변화시켜줄
사닥다리 예배자 야곱에 대한 전혀 새로운 메시지!

사닥다리 예배자

소강석

이 시대 대표적 감성 내러티브 설교자
소강석목사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환상적인
야곱 서사의 결정판

2014년을 사닥다리 예배자 야곱과 함께 시작하세요!



261면 / 10,000원



맨발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예언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틴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명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교신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십자가를 제압하라 320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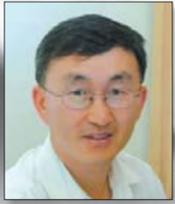


생명을 넘어 나뭇잎 533면 / 16,000원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창조론의 기초(2) - 별빛과 시간

지구가 태양을 약 6000번 돌아 2014년 새해를 맞게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보다도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다. 시간은 지구의 존재와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우주에는 지구 외에는 아무 물질도 없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 우주공간은 흑암으로 싸여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온 우주에서 지구만 더욱 강조되었다. 이 빛의 가장 큰 목적은 지구를 밝게 비추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것이 보시기에

조(sign)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나는 부끄럽게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왔다.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비뻔에 휘둘러 수 억 광년 떨어진 별빛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지구에 도달해 땅을 비추었겠는가 의심한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은 무엇이나 하실 수

어진 별 빛은 100억 년 전에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백억 광년 멀리 떨어진 별빛은 빅뱅 초기에 출발한 빛이어야 하므로 그 별빛을 분석해보면 은하가 성숙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완전히 성숙한 은하가 존재한다. 비뻔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그저 놀랄 뿐이다.

앞에 언급했듯이 창조과학자들 중에 한 물리학자(Russell Humphreys)가 이 가장 어려운 별빛 문제를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한 가지 과학적 모델이다. 창조과학자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계 내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할 뿐이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한 모델일 뿐이다. 블랙홀이란 것은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관찰되지 않은 가상의 특이점이다. 이 가상의 블랙홀 안에서는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구부러진 시공간이라고 했고, 질량을 가진 천체는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태양의 중력 때문에 별빛이 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듯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아니라 상대적이며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의 속도도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초당 30만 km라는 것은 언제나 사실인 것이 아니다.

창조 4일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 공중에 다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게 하셨다(사40:26). 그 별들이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지구에서 그리고 서로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 틀림없다. 후에 언젠가 하나님은 커튼을 펼쳐듯이 공창을 펼쳐셨는데(사40:22, 42:5, 45:12, 렘10:12) 이때 더 멀어지게 되었을 것이다(적색편이 현상도 이 공창이 펼쳐진 결과로 여겨진다). 이 공창의 펼침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구의 중력이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 마치 블랙홀 같았다면 이때 지구의 시간은 (거의) 정지해있었을 것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들은 지구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을 것이다. 무한히 먼 곳의 빛들도 지구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구에 도착하게 된다.

창조 3일째까지 우주에는 지구만 있었고 시간의 창조자는 시간을 지구를 중심으로 계속 세고 계셨다. 창조 4일째 태양이 생겨서 1년과 계절이라는 시간 단위가 생기기는 했지만 하루의 기준은 여전히 지구의 자전이다. 아인슈타인 등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적용해서 만든 창조과학자의 이 모델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

Humphreys의 지구중심모델은 우주선 속도저하문제 명쾌히 설명 짧은 시간에 수억 광년 거리 별빛이 지구에 도착할 수 있음 증명

좋았더라고 하셨다.

크리스마스를 지나며 마음속에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2학년부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과 몇 년 전 창조과학을 만나기 전까지도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마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빛이 '진짜였을까?'라고 질문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스티플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었는데 똑똑(?) 나는 그것을 단순히 신화로 치부해버린 것이었다.

"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창1:14하). 하나님은 그 창조 4일째 되던 날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그날 지구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창1:15). 지구에 사는 당시의 형상들이 이 빛들을 보고 계절이 변하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그 창조자를 잊지 않도록 하셨다. 그 한 예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때에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하여 징



먼 곳의 별빛이 어떻게 지구에?
지구의 중력이 커지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별 빛이라도 곧 지구에 도달한다.

있기 때문이다. 신실했던 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어떻게 그 빛을 지구에 비추게 하셨는지를 모를 뿐이었다.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욥38:33b).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먼 곳의 별빛을 짧은 시간에 지구로 가져 오셨을까? 욥이 대답할 수 없었던 이 질문에 한 창조과학자가 모델을 만들었다. 비뻔자들은 빛 속도가 언제나 변하지 않으므로 백만 광년 떨어진 별(은하) 빛은 백만년 전에 출발한 것이고, 100억 광년 떨

려진 시공간이라고 했고, 질량을 가진 천체는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태양의 중력 때문에 별빛이 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듯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아니라 상대적이며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의 속도도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초당 30만 km라는 것은 언제나 사실인 것이 아니다.

창조 4일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 공중에 다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게 하셨다(사40:26). 그 별들이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지구에서 그리고 서로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 틀림없다. 후에 언젠가 하나님은 커튼을 펼쳐듯이 공창을 펼쳐셨는데(사40:22, 42:5, 45:12, 렘10:12) 이때 더 멀어지게 되었을 것이다(적색편이 현상도 이 공창이 펼쳐진 결과로 여겨진다). 이 공창의 펼침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구의 중력이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 마치 블랙홀 같았다면 이때 지구의 시간은 (거의) 정지해있었을 것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들은 지구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을 것이다. 무한히 먼 곳의 빛들도 지구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구에 도착하게 된다.

은하) 빛이 지구에 도착하게 할 수 있음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모델이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Dr. Humphreys)는 이 지구중심모델에 근거하여 아직도 NASA의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태양계 밖으로 향하는 우주선의 속도저하문제(Pioneer effects)를 설명하였고 빠르게 예측하였다. 그의 모델이 예상치 않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성경을 외면하거나 타협하는 마음들 대신 다윗과 같은 고백이 많은 교회들에서 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8:3-4).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모두가 도움이 되지 않는 옴의 친구들

옴이 그 많던 재산, 여러 명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에 놀란 가슴 진정하기도 전에 너무나 가려워 건딜 수없는 피부병에 걸려 피부부를 긁어대느라 정신이 없이 얽힌 데 덮친 저주에 가까운 재앙을 만난 옴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논리가 일반적인 행위규원의 정서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이웃을 보면 대부분 우리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리도 끔찍한 천벌을 받는가? 자신은 재앙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에게 특별하도 받은 듯이 목에 힘을 주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위로의 이름으로 가만있어도 힘든 저를 불난 집에 부채질하며 화약을 던지는 저들입니다. 친구들이 저의 예기를 듣고 와서 보고 처음엔 너무 놀라 함구하고 있다가 드디어 네 죄를 이실직고하라고 들이칩니다. 친구인지 원수인지,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았으니 자신들이 옴보다 당연히 깨끗하다고 믿고 회개를 강요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안보이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팔 걷고 난리입니다. 엘리바스는 '네가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 죄 고백하라'(욥4.5,15,22장) 추궁해 옴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몰아세웁니다. 빌닷은 '네가 네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고난을 받는 거야, 언제까지 고집피울 작정이나?'(욥8.18,25장) 밀어붙이니 옴은 하나님께 내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반문하게 합니다. 이어서 소발이 '네 죄는 네 고난의 크기보다 크니 너는 네 죄를 버리라'(11, 20장) 몰아세우니 자신이 회개하려해도 지은 죄보다는 이제까지 깔끔히 살아온 자신의 삶이 더 생각나, 나는 착하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이 고통이 너무합니다. 원망스러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세 친구가 옴의 죄를 표적하여 사정없이 공격할수록 옴을 자기 외에 매달려 더 원망으로 빠져 악에 바치도록 밀어 넣음을 보고 엘리후가 나섭니다(32-37장).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일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니 모두 잠잠하라 말하니 옴이 조용해집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옴의 눈을 여시어 무궁무진한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선 도저히 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너무나 힘겨워서 지난날 자기 의의 목록을 내세우고 마치 하나님에게 당연한 축복의 보따리를 맡긴 듯 분통해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지껄어던 말들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자기 중심의 너무나 적은 자신을 만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께 내세울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이 티끌과 재인 아무 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께 감히 그 무엇을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입이 다물어집니다. 옴이 피조물로 겸손히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깊이 인식하며 그 분을 알아드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 위치대로 회복해주시킵니다. 극도로 분노하여 방어 자세로 친구들의 정죄에 맞서던 사나운 마음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어리석은 친구들을 축복하도록 하여 옴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됨을 확인해주시킵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지혜로우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한 저가 마음을 풀어 친구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축복하니 그 축복이 자신으로 시작하여 모두에게 쏟아집니다. 고난은 공평하게 누구나 만납니다. 우리 모두 그 고난의 터널을 제대로 통과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문제 목상에 빠져 그 초점이 인간의 행위에 눈이 가있으면 움직일수록 빠져 들어가는 수렁입니다.

고통의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주위에 고난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내게 고난이 닥치지 않았다 해서 죄를 회개해야 고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선악에 집착하도록 잘못 나선 옴의 친구들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보며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행여라도 건방진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고난이 없으면 은혜에 감사드리고 고난의 때에는 먹구름이 겹히기까지 구름위의 태양이신 인생을 다스리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미주오순절연합 총회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제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 자
- 4) 목사안수
1. M.A., M.Div sms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2. B.A sms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1) 제출기간: 2014년 2월 28일 까지

5. 기타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제 활동)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5 Net-work 형성 한국- 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1 / 최명상 목사(323)317-3749

미주 오순절 연합총회(구 순복음) 총회장 김두경 목사 총무 석종규 목사

“바른 신학”



리차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운동의 정체성 이해 (2)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3) 레노바레의 에큐메니칼 정신
포스터는 레노바레를 시작하면서 일종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그는 이 운동을 특정한 교파 또는 신학적 전통에 국한시키려 하지 않고, 에큐메니칼 정신에 맞추어 교계내의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1948년에 첫 총회를 가진 WCC 운동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협력할 것을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다. 레노바레가 에큐메니칼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레노바레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20년이 넘도록 영적 형성 운동에 기초를 둔 레노바레의 방침은 기독교적이며, 그 폭은 에큐메니칼적이며, 그리고 범위는 국제적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양하다. 한글로 번역된 “레노바레 성경”도 다를 바가 없다. 이 책의 추천자들과 번역진의 배경이 유난히 다양하다.
“레노바레 성경”은 마치 주류 교단과 신학교가 레노바레가 널리 수용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일종의 홍보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 레노바레는 각 교단의 공식적 견해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레노바레와 “레노바레 성경”은 한국교회의 각 교단에서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의 후원을 받는 일에 성공한 것이다.

4) 포퓰리즘 뒤에 숨겨진 정체성
지금까지 우리는 레노바레의 대중성과 관련된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였다. 레노바레는 이 운동의 창시자인 포스터의 개인적 명성에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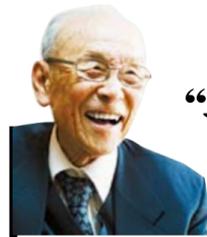
려간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중심은 우리에게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지도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게 한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생명을 발전하는 데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형성에 관한 것이다.
영적 형성은 하나의 과정이며, 동시에 그것은 일종의 여행인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연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방관자가 아니며, 변함없이 우리와 관계를 하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 교단과 신학 초월한 운동 한국에선 ‘신비주의’ ‘가톨릭영성 근거’ 인정 안 해

현재 미국 레노바레 본부의 사역자들은 매우 다양한 교단에 속해있다. 그들은 침례교, 웨이커, 성공회, 자유감리교, 미국침례교, 로마가톨릭, 미국복음주의장로교, 루터교, 연합감리교, 하나님의교회, 그리스도하나님의교회, 남침례교, C&MA 등에 속해 있다. 레노바레의 에큐메니칼 정신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포스터가 편집하여 2005년에 출판한 “레노바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래의 그대로 번역하면 “레노바레 영적형성 성경”이지만, 한국어 번역 제목에는 “영적 형성”이 빠져 있다. 원래는 이 성경이 “영적 형성”을 위한 지침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50명이 넘는 집필자들의 프로필에 나타난 신학적 다양성이 매우 흥미롭다. 오랫동안 영성 신학을 가르쳤던 미국장로교회(PCUSA) 목사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에서부터 웨이커 신학교인 조지프스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 하워드 메이시(Howard R. Macy)까지 이 프로필 목록은 레노바레의 에큐메니칼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에 레노바레가 소개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레노바레는 그 시작과 함께 특정 교단이나 신학적 정체성을 뛰어 넘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을 도입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인물들과 현재 한국 레노바레의 사역자가 속한 교단도 매우 다

입어 보다 쉽게 수용될 수 있었으며, 외적 상징이 아닌 내적 변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던 상황에서 소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교단과 신학을 초월한 운동으로 그 성격을 굳혔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레노바레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인물의 포퓰리즘 뒤에 레노바레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교회보다 한국교회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실 레노바레가 한국에 소개된 지 수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정체성은 아직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현재까지도 한국 레노바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운동이 신비주의이며 가톨릭 영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그들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웹사이트(www.renovare.co.kr)에서도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그러나 미국 레노바레의 홈페이지(www.renovare.us)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에, 한국 레노바레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사역의 목적을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을 통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통일체를 지녔지만, 우리의 삶은 대부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하여 이끌

10:10)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레노바레에서 그러한 풍성한 삶이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받아들임으로서-그와 같아지고-우리는 매일 매일 확실히 새로워지는 생활과 믿음의 풍족함을 경험하게 된다(골3:10).
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레노바레의 영적 형성은 ‘내재하는 영적 중심’, ‘내적 생명의 발전’, ‘내면의 여행’, ‘하나님과 함께 참여’ 등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신비적인 방법들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레노바레는 매우 생소한 방법에 근거한 내적 성장을 통하여 교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당찬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를 찾아온 것이다. 지금까지 레노바레는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을 참여시킴으로써 매우 훌륭한 마케팅을 해왔다. 그러나 포스터의 레노바레의 정체성을 포퓰리즘 뒤에 숨겨둠으로써 미성숙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혼동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포스터가 제시한 교회의 갱신이란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다음호에 계속)



방지일 칼럼 (23) “본대로 들은 대로”

순풍이나 역풍이나

항해하는 선원들 더욱 풍선에 돛을 달고 항해할 때 그 순풍에 돛을 달면 요즘 엔진달린 것보다 더 낮게 달리는 것이니 그 기분이 어떠할까?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호송될 때 그 태풍에 크게 어려움을 당한 기록도 사도행전에 독특하게 수록되어 있다.
우리 인간이 이 고해를 건너는 동안 순풍도 있으나 역풍도 있다. 내 60여년간 교회생활에 있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감사함을 표현 못한다. 그런 교인들과 같이 감사하며 찬송을 드린다. 흐뭇함을 느낀다. 그러나 역풍에 역풍으로 풍은 설상을 당하는 일도 때론 본다. 그 교인은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한다. 뱃머리가만 한다. 풀리지는 않는다.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다. 우는 자와 같이 울게도 된다. 위로도 받는다. 견딘다. 그 견뎌를 감사한다. 그 도수가 더욱 높아진다. 참고 견디기도 그 한도가 있다 하겠다. 더 견딜 수 없기도 하다. 대신 그 짐을 좀 져 주고자도 한다. 같이 운다. 그 동정에 위로도 받으려나 더한 시련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역풍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실까? 사도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전10:13)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이 비결을 터득하였다. 이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시다. 아무리 역풍이라도 견디게 또 피하게 하신다.
순풍만을 위할 것은 아니지만 역풍을 받은 은혜도 크다. 육적으로 말하면 극히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 신앙적으로는 더 깊게, 더 고상하게, 또 폭이 넓게, 천막 줄을 길게 말뚝에 든든하게 박아 든든히 함을 본 것이다. 자신의 질병 혹은 사업상 차질, 자식의 질병 심지어 그 사망, 견디기 어려운 바이나 거기서 신앙의 힘을 길러 얻는 것을 보았다.
어느 자식이 귀하지 않으리요만은 만득자(나이 들어 얻은 지식:편집자)로서 그렇게 귀히 기르던 아들이 중학교에까지 진학했다. 또 그러도 총명하던 아들인데 심장질환으로 여러 번 입원하였다. 좀 나으면 퇴원하는 반복이 그러도 많았다. 드디어 가고 말았다. 그 슬픔의 극한이야 더 말할 수도 없었으나 그때부터 그 내외부의 신앙은 살아났다. “복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라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야4:16)
역풍이든지 순풍이든지 내게 있는 향기를 날려 사랑하는 자가 흡향하여 만족하다. 이렇게 삶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육은 편한 것을 좋아한다. 편하기만 바란다.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양약은 고구나 이어병(藥苦口 利於病)이란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
어떤 교회의 표어는 “오직 예수” 이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표어를 삼은 것이다. 변화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시선이 자못 분주하였다. 그들이 그렇듯 존경하는 모세, 사모하는 엘리야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들었으나 본다는 것은 천만의 말이었다. 이런 두 분이 저들의 면전에 나타나셔서 주님과의 대화 장면이었을 때 이 분이 모세, 이 분이 엘리야시라고 또 우리 주님, 그 눈앞이 힘있게 분주하게 굴었던 것이다. 큰 지진인 큰 운동이 일어나 저 세 제자는 앞드러지고 말았다. 주님께서 저들을 일으키시매 일어나 보니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습니다. 모든 신앙인의 표준형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예수”만 위한다. 그만 양망한다면 그 역경이든지 그 순경이든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역경 역경이라고 겁내거나 불평할 것은 아니라 신앙인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그 주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 만족한 것이다.
(1996년, 2권)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1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2 교회(기관) 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5 사택 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
8 Web Add.	http://
9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원로목사회 월례모임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새해 첫 월례예배가 28일(화) 오전 11시 후리산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열린다. 10시30분부터는 합창연습이 있다. ▲문의: (718)939-8599

교역자 청빙

PCUSA 소속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풀타임 담당 교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분야는 교회전반 행정 및 청년부 사역으로 이중 언어가 가능한 정규신학대학 졸업자로 이력서, 신앙고백서, 추천서 2부가 필요하다. ▲문의: (718) 639-3021

사역자 청빙

메릴랜드에 있는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병래 목사)가 종교등부(Youth Group)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혹은 재학생), 영어에 능통하며(한국어 소통 가능) 미국 체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력서(1매, 사진첨부)와 신앙고백서가 필요하다. 마감은 1월 31일. 서류는 이메일(12dchung@comcast.net)로 보내면 된다. ▲문의: (443)243-0061 정석표 장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강좌

미주기독교미디어단체 시존(대표 문석진 목사)의 제 29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강좌가 지난 16일 개강해 매주 목요일마다 4회 실시하고 있다. 강좌 주제 '스마트폰 선교활용법'. 강사는 문석진 목사로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사장 문석진 목사)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는 40달러 이상으로 KCBN 앱 방송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신청 자격은 스마트폰을 가진 목회자나 사모, 그리고 목회와 선교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원하는 분으로 선착순 12명.

한편 KCBN은 2014년 새해부터 교회의 신청을 받아 '실버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방문 강좌'를 개최한다. 주일예배 후 친교시간에 1시간30분 동안 총 4회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없으며 등록금 40달러는 KCBN 앱 방송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첫 강좌는 생명성교회(담임 김영민 목사)에서 지난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문의: (718)463-1700/KCBN 이메일 newyorktop@gmail.com

“기쁨과 감사로 찬양 넘치는 교계로”

뉴욕장로성가단 2014 신년예배 및 기도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 2014년 신년예배 및 기도회가 지난 7일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손성대 장로 인도로 황영진 목사가 골로새서 3장 15-17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황 목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의 제목의 말씀을 통해 “장로성가단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귀한 찬양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천국에서도 찬양을 계속하게 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교회가 연합되고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가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이 넘치는 교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각 파트장들이 각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다. 총무 이금식 장로는 통성기도와 끝맺음기도를, 단원들을 대표해 B1 파트장 이희

중 장로(성가단의 성장과 발전, 장로 결석자와 단원배가를 위해), T2 파트장 김재관 장로(새해 사업계획이 잘 이뤄지도록), B2 파트장 박정규 장로(후원사회의 발전과 장로성가단의 재정자립을 위해), T1 파트장 우화선 장로(단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위해), 홍보부장 이계훈 장로(뉴욕교계의 연합과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가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손성대 단장은 광고를 통해 14일 교협 신년하례예배 찬양, 6월 8일 정기연주회, 6월 13일 할렐루야대회 찬양, 7월 교협주관 선교여행 등의 사업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단원들이 각 파트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뉴욕목사회 2014년 새해맞이 금식기도성회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개최한 2014년 새해맞이 금식기도성회가 지난 1일 저녁부터 3일 정오까지 사흘간에 걸쳐 필라 파인힐 수양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평신도들과 함께 새해를 맞는 기도원 성회를 개최하며 회장 황동익 목사는 “새해를 맞아 모든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교회와 교계 단체들이 꿈과 계획을 세운다”며, “그러나 그 꿈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이뤄질 수 있다(잠16:9)”고 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금식기도성회를 통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자”고 개회인사를 했다.

이번 성회는 총 40여 교회에서 180여명이 참여해 목사회가 의도했던 대로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이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 윤병이 목사(반여제일교회 담임, 한국기독교기독교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개회기도회부터 총 6회의 성회를 인도하면서 예배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성령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 또 윤병이 목사와 동행한 정진수 목사(한국기독교기독교원총연합회 이사장)가 2일 오전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뉴욕목사회가 2014년 새해맞이 금식기도성회를 했다

40일 금식을 열변했다는 윤병이 목사는 첫날 민수기 13:25-14:10을 본문으로 “생각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 목사는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한다. 변화는 믿음에서 오는데 성화를 의미한다.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

않으시는 제사(예배)가 있다. 의식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거룩한 배짱과 용기다.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 성회에서 윤병이 목사는 사무엘상 1:9-20을 본문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기도는 호흡이며 기도 안하면 영혼이 죽은 것이다. 기도하면 나쁜 일을 막아주고 교만하지 않는다. 기도의 원리는 윤리(=질서)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기도응답은 명령으로 온다”고 말했다. 또 저녁성회

에서는 누가복음 22:39-44을 본문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설교했다. 윤 목사는 “기도는 기술이므로 시간과 노력으로 투자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 기도는 생산이며 능력이며 무기다. 기도하는 자세, 회개, 신앙생활 점검, 사역을 다하고 자기부인, 순종” 등을 강조했다.

3일 새벽에는 다니엘 3:13-30을 본문으로 “믿음은 첫째 확신, 둘째 선택”이라며 “구원 받는 믿음과 은사적 믿음=능력이 있으며 수많은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숙된다”고 말했다.

폐회성회에서는 에베소서 5:15-21을 본문으로 성령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성령충만은 내적충만(열매맺는 것)과 외적충만(능력, 전도)으로 둘 다 가져야 한다”며 “성령충만하면 순종하고 화목을 도모한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 채운다”고 강조했다.

또 각 성회마다 인도자를 따라 △한국과 미국을 위해 △뉴욕 교회부흥과 목회자를 위해 △가정과 기업에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마지막 기도회에서 윤병이 목사와 정진수 목사, 준비위원장 이성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 신년 첫 월례회

각 교단총무 초청모임 겸해

뉴저지교협(회장 김동욱 목사)이 지난 8일 제 27기 신년 첫 월례회 및 각 교단 총무 초청 모임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임신행위 월례회에서는 올해 진행될 사역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오는 26일(주)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있을 '신년하례식' 준비에 대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목사 신분증

을 발행한다. 수수료는 50달러이며 재발급은 20달러.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매 회기마다 재 발행한다. 월례회 후 신년 떡국잔치를 벌였다. 이날 참석한 교단은 다음과 같다.

- ①성결교(최강인 목사) ②PCUSA(조문길 목사) ③침례교(성영호 목사) ④UPCA(육민호 목사) ⑤C&MA(최재형 목사).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퀸즈장로교회 제직수련회에서 김성국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축복이 흐르는 제직” ..목숨걸고 앞장서라

퀸즈장로교회 제직수련회 강사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제직수련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동안 열렸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부임후 처음으로 갖는 제직수련회의 강사로, 2014년 신년표어 “축복이 흐르는 교회”와 연결해 “축복이 흐르는 제직”이란 주제로 설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총 8번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전했다.

첫 설교는 여호수아 1:1-18을 본문으로 “기왕이면 앞장서라”라는 제목으로 △순종으로 앞장서라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형통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또 마지막 집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목숨건자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며 퀸즈장로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건 제직들이 있었다”며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죽을 각오가 있는가” 반문하고 “제직생활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일에 생명을 걸고 앞장서야 한다. 퀸즈장로교회의 지난 40년보다 앞으로 올 40년의 파도가 더 크다. 시시한 문제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민의 삶 통해 오늘 여기서 완성되는 선교”

필라안디옥교회 “세계선교사명자대회”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선교사명자대회”가 올해로 16회를 맞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 번의 저녁집회와 토요 새벽기도회, 그리고 주일오전 다민족 다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OICC예배를 통해 “Here and Now, 이민의 삶을 통해 오늘, 여기서 완성되는 선교”라는 대 주제로 열렸다.

주 강사로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가 말씀을 전하고 같은 시간에 영어목회부(EM), 히스패닉 사역부(HM) 그리고 종교등부와 어린이부까지 같은 주제로 집회를 가

짐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눴다. 아울러 각 사역팀들의 헌신과 작정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한해에 더욱 발전하고 겸손하게 선교라는 대 명제를 완성하고 앞장서는 필라안디옥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말씀은 첫날저녁 “약속의 땅을 향하여”(수3:1-6), 둘째날 새벽 “감사와 기도”(빌1:9-11), 저녁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마9:35-38), 셋째날 오전 “은혜 공동체”(행 11:21-26)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이 선포됐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4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4년 5월 16일(금) ~ 19일(월)
- 2) 고시 장소: Toronto, Canad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 주해 - 레위기 21:1-9
 - (2) 신약 주해 - 누가복음 16:19-26
 - (3) 논문 제목 - 표절과 목회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 (4) 설교 본문 - ① 신약 - 고린도전서 15:1-10
 - ①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② 필기고시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실기교사를 치를
 -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재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4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8회 총회기간(5월 20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에게 5월 16일-20일까지 속소를 예약할 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 (Rev. Se Young Han) / Email: syhan91@hotmail.com
4313 Markham St. Anndale, VA 22003 Cell: (703)945-2958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허상희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3) 영어권 안내: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미주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자”

2014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 8개 교계단체 공동주최

2014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가 12일 오후 4시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교협, OC 교협,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원로목사회, OC원로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미주한인재단 USA가 공동주최하고 미주한인재단LA가 주관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박효우 목사(남가주교협 회장)의 사회로 시작, 빈센트 김 변호사(미주한인재단LA 회

장)가 개회사를, CCM가수 박선영 씨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불렀다. 이어 원영호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대행)의 대표기도, 사라 손 전도사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민경엽 목사(OC교협회장)는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렘29:4-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민자의 삶은 확실한 불연속성의 삶이다. 특별히 111년전 하와이로 이주해온 이민선조들은 최저 임금 69센트를 받으며 살았으며 그

들이 받은 급여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이국 땅에 우리를 보내신 소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공을 붙잡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진 때 이민자로서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심어두신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는 환영사에서 “코리아어메리칸의 범주는 한국에서 이민온 자

들뿐만 아니라 20만명 이상의 입양자들과 그들의 양부모, 그리고 결혼으로 사돈이 된 타민족들”이라며, “미국한인재단은 미국에서 주인되기 운동을 펼치는 단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한 자들로 자라야 한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다. 미주한인의 날 예배는 모든 미국인들이 복을 받는 감사예배로 드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혜빈 KCCD 회장, 윤성원 목사(미주한인재단 USA 상임고문), 이종렬 목사(아메리카 헌팅턴대학교 이사장)가 축사했으며 특별기도 순서를 가진 뒤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수석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풍성한교회에서 열린 미주한인어메 111주년 기념 2014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에서 OC교협회장 민경엽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HYM 화요일기도회가 주며 이곳에 청년 부흥을 허락하소서!라는 주제로 은혜한인교회 WPC에서 열렸다.

HYM 화요일기도회 장소이전

매주 화요일 오후8시 은혜한인교회 WPC

남가주청년연합회(HYM 대표 더글러스 김) 화요일기도회가 ‘주여! 이곳에 청년 부흥을 허락하소서!’라는 주제로 7일 저녁 8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프라이즈센터에서 열렸다.

지난해까지 LA에 위치한 행복한교회(담임 전정하 목사)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스텝기도회를 가져온 HYM은 기도회 참가대상을 청년들까지 확대시키기로 결정하고 올해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은혜한인교회 WPC에서 실시하게 됐다.

전 수진 전도사(은혜한인교회 청년부의 인사말로 시작된 첫날 기도회는 HYM찬양팀(인도 송민우 목사)의 찬양인도, 더글러스 김 대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마3: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김 대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영적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과거 대학 교원캠퍼스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반 이상 됐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오늘날 기독교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게 돼 3.2%만 남게 됐다. 청년이 교회를 떠나면 다음세대는 암흑의 시대가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곳 미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의 상황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삶속에서 예수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714)393-5135로 하면 된다.



남가주장로성가단 신년감사예배 및 신규임원 이취임식이 옥스포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회장 이취임식에서 최대현 이임희목사가 감사인신임회장에게 단기를 전달하는 모습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사역되도록”

남가주장로성가단 신년감사예배 및 임원 이취임식

남가주장로성가단 신년감사예배 및 신규임원 이취임식이 지난 6일 오후 6시30분 옥스포드호텔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1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성일 장로(ANC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장로성가단의 단원으로 직무를 허락하셨다. 부족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부담이 된다. 이 부담감은 열심히 하라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올 한해 장로성가단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대현 장로는 회장 이임희에서 “단원들의 성원으로 20년사를 밝힌 하게 됐으며 디즈니를 연주회 등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우리 생각, 기도보다 더 많이 채워 주셨다. 모든 단원들이 물질과 온 마음으로 헌신한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흥주 장로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장도영 장로가 기도를,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이 특별찬양을 했으며 유진소 목사(ANC온누리교회 담임)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계19: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21대 회장 김성일 장로가 전임회장인 최대현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최대현 장로로부터 단기를 전달받았다.

(박준호 기자)

한영훈사랑의교회 개척 첫 예배

한영훈사랑의교회(담임 최요셉 목사)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첫 개척예배를 지난 5일 드렸다. 첫 번째 예배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최요셉 목사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적 제자를 세우

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동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박상원 목사가 대표기도를, 김용식 목사(SBC 캘리포니아 주)가 축사, 김영찬 목사(OC 목사회 회장)가 격려사를 했으며 남용순 목사(전 SBC 미주총회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 7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글로벌다민족주제선교교회연합회(대표 정윤명 목사/월드크리치아어셈블리교회 담임)가 주최하는 제 7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컨퍼런스(All Nations Intercessory Union Prayer Conference)가 1월 26일(주) 오후 6시부터 샌프란시스코 Tiburon Baptist Church(Greenwood Beach Road, 담임 John Shouse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25)-639-9527, 988-9191

은혜한인교회 신년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신년부흥성회를 23일(목)부터 26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 중양교회 담임)이며 시간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30분, 새벽 5시30분(금,토), 주일 1-4부 예배.

▲문의: (714)446-6200

LA 기운실 세미나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허성규, 흥진관)과 세계선교교회(담임 최원형 목사)가 공동주최하고 도시공동체연구소(소장 정석환 박사)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선교적 회의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21일(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세계선교교회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10 달러(교재와 점심, 저녁식사 제공). 강사는 마크 브랜든 박사(플러린학교), 정석환 박사(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장신대 기독교문화연구소), 이남정 목사(서울 바람빛교회 담임/MeXXT 대표)

▲문의: (213)387-1207

제15대 Fuller한인M.Div.동문회 총회 신년모임

풀러한인M.Div.동문회(회장 박세현 목사)는 제15대 풀러한인M.Div.동문회 총회와 함께 풀러한인총동문회 신년모임을 19일(주) 오후 6시에 데저트 팜스 온천에서 갖는다. 아울러 Fuller한인M.Div.동문회 가족수양회를 19일과 20일 같은 장소에서 갖는다. 참가비는 가족당 40 달러(1인 20달러).

▲문의: (951)704-6087

OC 목사회 이취임식

오렌지카운티 한인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 회장단 이취임식이 19일(주) 오후 4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삼은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229-8492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세워진 한영훈 사랑의교회의 첫 개척예배가 지난 5일 드러졌다

다. 한영훈사랑의교회는 LA에교회(담임 최요셉 목사)의 지교회이며 교회위치는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예배시간은 매주 오후 1시30분이다. ▲문의: (714)644-8375 (기사제공: 한영훈사랑의교회)

Table of church announcements and services across the West Coast, listing variou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등둔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문교회, 동양선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삼성장로교회, 새천년교회, 새창안교회, 새생명선교회, 세계소망교회, 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엘빙한인교회, 요셉선교회, 월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영영광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조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2014년 꿈과 희망 심어주는 해”

남가주 한인사회/교계지도자 초청 신년조찬기도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의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가 주최한 남가주 한인사회 및 교계지도자 초청 2014 신년조찬기도회가 지난 6일 오전 7시30분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가주교협 주최 남가주 한인사회 및 교계지도자 초청 2014 신년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날 변영익 목사(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남가주 한인사회 단체장 및 교계지도자들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 모든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해가 되자”고 말했다.

예수그리스도의 놀라운 빛과 사랑이 전파되는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우 목사는 ‘음지에서 양지를 바라보자’(히12: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 어두운 곳에 처한 자들과 낮은 위치에 처한 자들은 우리들의 형제자매이며 친구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 2014년은 밝은 곳에서 어두움을 바라보는 예수 바라보고 최선 다한 어려운 자들에게 손 내밀고 땀 한조각 나눌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남가주 교계와 사회단체, LA 카운티 등 남가주 미국 전 세계에

대한민국조찬기도회 회장 김명규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새해를 맞아 우리는 먼저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은 물론 우리 동포들의 삶이 한결 여유를 찾는 축복의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영호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대행)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조찬기도회는 국민의례, 변영익 목사가 환영사, 박은중 목사(남가주교

협 부회장)가 기도, 박효우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특별 기도순서에서는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가 ‘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 강용순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하여’, 송규식 목사(OC교협 부회장)가 ‘미국인양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윤성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교포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정우성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세계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kapc 뉴욕 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가자”

14일 KAPC 뉴욕노회 신년하례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허상회 목사) 신년하례예배가 지난 14일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 후에는 가족대향 옷놀이와 경품 추첨 등을 하며 친교했다.

이영상 목사, 성경봉독 박규창 목사, 설교 한세영 목사(위싱턴 메시아장로교회 담임), 통성기도, 축도 김해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세영 목사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엡3:1-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는 결코 쉽지 않고 만만하지도 않다. 갈수록 힘이 든다. 무

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목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이는 자랑스런 일이다. 둘째, 주신 직분이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목사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이미 정답이 나와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가야 한다. 목회는 은혜로 하는 것이므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위기를 만나면 축복으로 여기라. 은총의 막대기를 붙들고 나가자”고 역설했다.

옷놀이는 조성훈 목사(뉴욕제일장로교회 담임)가 담당했으며 경품 추첨 및 시상상은 허상회 목사와 허윤준 목사 담당했다.

(유원정 기자)

KUMC총회장단 동성애 관련 상향 입장표명

교회분열방지 최선, 다른 대안도 고려 등 6가지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전 현직 한인총회장 4명이 최근 교단 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동성애 관련 상황들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현 총회장인 안병훈 목사(아플라연합감리교회)와 구 총회장인 이성철 목사(19대,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김정호 목사(18대, 아틀란타연합감리교회), 이훈경 목사(17대,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은퇴)는 “최근 교단 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 표명서는 각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발송됐으며, 서명을 통해 이 입장에 동참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발송된 표명서의 내용에는 먼저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10월 서부지역 Melvin Talbert 감독(은퇴)이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자 결혼에 식 집전계획 발표 및 실행 △알라바마 지역 감독인 Wallace-Padgett 감독과 총감독회 실행위원회의 이에 대한 공개적 우려표명과 자체요청 △동성애자 결혼예식 집전 이후 Talbert 감독에 대한 총감독회의 교단법에 의거한 고소결정 △총감독회 결정과 입장에 대한 일부 감독의 공개적 이견 표명 및 비판 △동성애자 결혼식 집전으로 인해 지난 11월 펜실베이니아의 교단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Schaefer 목사의 견거하며, “더 이상 한인교회가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각 아래 복음의 실천과 예언자적 사명을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공표하고자 합니다”라고 입장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 입장표명서에 따르면 여러 그룹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Melvin Talbert 감독이 동성애자 결혼예식을 집전한 일과 그에 대한 교단의 리더십의 입장 표명과 비판, 그리고 동성애자인 아들의 결혼식을 집전해 유죄판결을 받은 Schaefer 목사의 사건 등 교단 내의 소위 ‘핫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와 관련된 최근 여러 사건들을 열거하며, “더 이상 한인교회가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각 아래 복음의 실천과 예언자적 사명을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공표하고자 합니다”라고 입장표명 이유를 밝혔다.

표명된 입장은 동성애 이슈로 인한 교회의 심각한 분열에 우려를 표시하고, 교회의 법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며, “더 이상 한인교회가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각 아래 복음의 실천과 예언자적 사명을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공표하고자 합니다”라고 입장표명 이유를 밝혔다.

표명된 입장은 동성애 이슈로 인한 교회의 심각한 분열에 우려를 표시하고, 교회의 법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며, “더 이상 한인교회가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각 아래 복음의 실천과 예언자적 사명을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공표하고자 합니다”라고 입장표명 이유를 밝혔다.



크리스천헬스케어(CHM)와 코리언어메리칸메디컬그룹(KAMG)의 MOU체결식에서 두단체간 양해 각서를 교환한 후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CHM-KAMG MOU 체결

기독한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제공 다짐

남가주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컬 그룹(KAMG - Korean American Medical Group 회장: 한승수 박사)과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인 크리스천헬스케어(CHM -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대표: 하워드 러셀 목사)가 더 나은 서비스를

다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오후 1시30분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한승수 박사와 스티븐정 CHM 한인 지원센터 소장이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수 박사는 “지난 2년간

KAMG는 CHM과 MOU체결에 대해 논의해왔다. CHM의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엔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한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스티븐정 CHM 한인지원센터 소장은 “CHM은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추후 청구되는 의료비용 전액을 CHM이 전액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며 한인들의 문의를 당부했다.

한편 크리스천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의료보험과는 다르며 의료비 공동분담 개념이다. 현재 5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0억 달러의 의료비가 지원된 바 있다. ▲문의:(213)444-1599 (박준호 기자)



NC 교협 임원들이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NC교협 제 24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회장 나성균 목사, 지역순회방문 등 계획

노스캐롤라이나(NC) 한인교회협의회 제 24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샬럿장로교회(다임 나성균 목사)에서 약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성 목사, 축도는 황성철 목사가 담당했다.

1부 예배는 제1부회장 나성균 목사의 사회로 회장 홍중수 목사가 빌립서 2장 2-4절을 본문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제하의 설교가 있었다. 기도는 송영

설교 후 공로패와 감사패가 증정됐다. 공로패는 은퇴한 송영성, 김성웅, 이승태, 강상룡 목사가 받았고 감사패는 증경회장들인 김동욱, 정을기, 조재언, 최동갑 목사에게 수여됐다.

예배 후에는 그린스보로 한인회 장 홍승원 공인회계사가 목회자 세

금보고와 오바마케어 그리고 자산운영 등 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2부 회무처리는 모든 통상 업무를 잘 처리한 결과 신입 임원진을 구성하고 잔무를 신입 임원에게 맡기고 폐회했다. 신입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나성균 목사 △제1부회장 송성섭 목사 △제2부회장 이철 목사 △총무 임대문 목사 △서기 송호철 목사 △회계 김영만 목사.

한편 폐회 후 모인 임원회에서는 교협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 제고를 위해 임원들이 그린스보로, 랄리, 웨이트빌, 샬럿 지역을 순회하며, 협력을 호소하기로 했다. 우선 27일(월) 정오 그린스보로 방문은 서울식당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지역순회 방문이 끝나면 5월 셋째 주에 2박3일 순회회를 마련한다. 9월에는 NC 선교순회부흥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제공: NC교협)



필라기독교교방송국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방송선교의 열정을 갖자”

필라기독교교방송국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필라기독교교방송국(사장 전영현 목사)이 지난 12일 오후 6시 낙원장로교회(담임 최형관 목사)에서 신년 감사 예배 및 하례회를 드렸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안영균 목사(필라지침례교회 원로)가 말씀을 선포했다.

예배는 전영현 목사의 인도로 서장석 장로(운영이사장) 기도, 오성환 운영이사 성경봉독(빌1:27-30),

안 목사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와 오랜 친분으로 초청 받아 한국 극동방송 각 지역을 순회하며 보고 느낀 실상을 전하면서 방송 선

만찬은 본 교회 여전도회에서 제공했다. (기사제공: 필라기독교교방송국)



미주한인재단이 주최한 2013년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에서 김정수 KBS PD(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참석해 상을 받았다

미주한인재단 2013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

김정수 KBS PD, 손인식 목사 등 6명 수상

미주한인재단(전국총회장 박상원 장로)은 지난 2일 오전 11시 JJ 그랜드 호텔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국총회장 박상원 장로는 환영사를 통해 “2014년은 미주한인이민 111주년 기념의 해로써 미주한인의 날이 제정돼 11회째 선포식을 개최하게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PD는 “미주한인재단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 전 세계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 수상자인 김정수 KBS PD는 1987년 KBS 입사 후 시사, 경제,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왔다. 김 PD는 “세계는 지금-러시아 모라토리움” 외 7편, “추적 60분” 6편, “신해양시대(삼부작)”, “신화창조의 비밀” 10편 등을 제작해 국무총리상, KBS

우수프로그램상, 방송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행정자치부장관상, 교통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여성부장관상 등을 수상한바 있다. 한편 미주한인재단은 자랑스런 미주한인 대상 수상자로 김정수 PD, 반재철 흥사단 전이사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석주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 이은애 미주한인재단 위임선 전 회장, 손인식 목사 등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미주한인재단 부내나 파 임종혁 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남가주교협회장 박효우 목사가 개회기도를 한 후, 미주한인재단 차세대 위원인 이미연 씨(UC버클리 재학)가 미국국가 및 애국가를 불렀다.

이어 박상원 총회장이 환영사 및 내빈소개를 했으며, 임명배 LA한인회 부회장이 이날 출타로 공석중인 배무한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윤성원 목사(미주한인재단 상임교문)가 축사했다. 이어 시상식이 있었으며 이미연 차세대 위원회 축사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OCU 신년 정기 모임



남가주한국에비역기독교교회(남가주OCU 회장 최훈일)는 신년정기모임을 11일 오후 12시 40분 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에서 개최했다. 김희정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임

만화 전회장단 대표(해군)의 기도, 본회 부회장 최희량 목사가 ‘급변하는 세시대’(막1:14-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윌타이 전 회장단 대표(육군)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최희량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 특강은 김홍우 목사가 ‘순교와 아버지의 삶’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기사제공: 남가주OCU)

선교지 소식

계속 불안한 이라크와 시리아

새해 특뉴스는 역시 이라크와 시리아이다. 이들 나라에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려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 그룹인 Islamic State of Iraq and Greater Syria: ISIS는 내전중인 시리아와 이라크에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ISIS는 이라크를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은 팔루자 등 일부 이라크 지역을 장악,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작년 12월 16일자 타임지는 "알카에다의 검은 스타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알카에다의 "새로운 스타"(?) 아부 바크르 알-바기디를 특집 인물로 다루었다.

2013년 이라크에서 테러공격으로 죽은 민간인이 무려 7,900명을 넘었다. 아부 바크르 알-바기디의 비전은 1)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칼리프 국가를 건설한다. 칼리프란 무함마드의 후계자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칼리프는 하나뿐이다. 예를 들면 오스만 투르크 통치시절 오스만 투르크에만 칼리프가 있었다.

2)이 칼리프 국가는 지중해와 페르시아만을 모두 포함한다. 그의 수하의 전사는 약5,6천명이지만 야코브안과 기타 여러 지역에서의 수많은 전쟁 경험으로 이들은 가장 강력한 테러리스트들이다.

현재 북아프리카의 남수단, 소말리아 등이 알카에다의 테러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집트, 리비아, 예멘, 레바논 등지의 이슬람 국가들은 다 시그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신생아 10명중 1명은 무슬림"...출산을 높여

영국의 신생아 가운데 이슬람교도 집안 출신이 10명 중 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이슬람 문화의 잠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슬림 인구 비율은 5살 미만 그룹에서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슬람교도 신도 숫자에서 주류 종교인 기독교를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통계청의 2011년 인구통계를 분석해 무슬림 출산율 증가로 기독교 중심의 영국의 인구 지형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0-4세 아동 350만 명 가운데 9%를 넘는 32만 명은 이슬람교도 가정의 자녀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이슬람교도 인구 비율을 5%를 웃도는 수치로 신세대의 증가 속도는 이슬람교도 집단이 다른 집단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0-4세 아동 비율은 43%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무슬림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미래에는 이런 지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왔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는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 교육부에 등록된 이슬람 학교는 136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무슬림위원회의 이브라힘 모고라 부총장은 이 같은 통계는 영국에 뿌리를 내렸다는 이슬람계 이주민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슬림 신세대는 엄연히 영국인이므로 통계에 대한 과민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문화 전문가 필립 루이스는 "이슬람사회 확장에 주류사회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출신지 등으로 볼 때 영국 내 이슬람 사회의 다양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레바논 기독교도서관 방화로 희귀본 불타

레바논 트리폴리의 40년 넘은 기독교 도서관에 무슬림 추정 방화 사건이 발생해 장서 수만권이 불타고 외신들이 6일 보도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의 '알사에 도서관'이 지난 3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8만권에 달하는 도서 대부분이 소실됐다. 이 도서관 소유주인 그리스정교회 이브라힘 수로지 목사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마호메트)를 모욕한 전단지들을 제작해 도서관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익명의 고개 관계자는 "수로지 목사는 전단지 제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1970년 설립된 알사에 도서관은 소장 도서가 7만8000여권 규모이며 그중 400여권은 희귀본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도서관 복구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지역 명소인 알사에 도서관을 방문했던 여행객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도서관 화재 소식을 전하며 "레바논의 진정한 보물이 사라졌다"고 속삭여 왔다.

트리폴리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5%다. 수로지 목사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화범을 용서한다"며 "트리폴리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십자말 • Cross Word (24)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29 indicating starting positions for words.

<가로 푸는 열쇠>

- 2. 천국(막4:11).
6. 사냥하여 잡은 짐승(렘13:21).
7. 예루살렘의 다른 아내(대상2:26).
8. 몇날(눅15:13).
10.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대상11:44).
11. 베냐민의 북쪽에 있는 성읍(수18:25).
13. 주일 다음날.
15. 팔레스틴의 한 지명(삼하2:24).
16. 요나단의 자손 아셀의 아들(렘35:4).
17. 처음(사18:2).
18. 이른 바(막10:42).
19. 엘리야의 아들로 제사장(느12:10).
21. 스승의 집(행22:3).
23. 아스투라왕국에 있던 나라(대상5:26).
24. 므낫세지파의 슬로브핫의 5녀 중 장녀(민26:33).
26.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는 길(대하8:18).
28.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OOO같이...(계13:11).
29. 소아시아 7교회 중 끝으로 언급한 교회명(계3:14).

<세로 푸는 열쇠>

- 1. 시편136편에서 26회나 반복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
2. 그 위에 더군다나(욘25:6).
3.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의 아버지(왕상19:16).
4. 구스의 아들이요 스바와 드단의 부친(창10:7).
5. 화 있을진저 OOO(눅10:13).
9. 한 해의 일곱째 달(창8:4).
10. 성읍의 이름(왕하8:21).
12. 요단강 동편 다윗의 용사 엘리엘이 살던 곳(대상11:46).
14. 유대왕 아몬의 아들, 31년간 통치한 선한 왕(렘25:3).
15. 기초가 되는 문(대하23:5).
18. 바울의 동역자의 한 사람(롬16:21).
19.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족장(스2:18).
20.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창38:11).
22. 이스라엘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셨다(시78:24).
23. 유다 남방에 있는 산. 다윗의 피난처(삼상26:1).
25.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미항에서 가까운 성읍(행27:8).
27. 집에 정원을 가진 사람은 매주 이것을 깎기에 수고한다(막6:39).

십자말 정답

crossword puzzle grid with answers filled in.

Directory of churches including: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에벤에셀선교교회, 주비전교회, 중부뉴저지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한마음침례교회,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남부한인장로교회, 덴버한인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밴앨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볼티모어교회, 샬럿장로교회, 새시온침례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얼린문교회, 엘파스얼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주예수교회, 큰루리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타코마새생명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템피파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하와이 행복교회, 오늘날루한인장로교회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인격가꾸기(3)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 명예, 성” 이 세 가지만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고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많도록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집도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목회자는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철저한 교훈 때문에 집도 사지 않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도 자녀들을 교육시킬 경제조차도 계획하지 않은 채 마냥 현금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못한 채 자녀들은 이미 다 커 버렸습니다.

고생하며 정부 빚을 얻어가며 공부한 자녀들은 이런 업마를 가리켜 바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돈에 욕심이 없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라스로 이사 온 후 친구 목사님 댁을 초대받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층집을 손수 지어서 으리

미리 선교지를 정해 놓고 재정후원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사모들은 홀사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두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은 마치 성공하지 못한 사역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은 청빈이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 자녀들 교육비보다는 고아들을 돕는 일에 더 앞장섰습니다. 교인가운데 부모 없는 청년들에게 주머니를 털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성장하여 교회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그의 경조사에 늘 찾아가서 축하해주기도 하며 위로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택에 방문이라도 하면 자녀들이 벗어놓고 학교 간 동안 집에서 입는 옷가지들을 몽땅 그들에게 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 옷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두었냐고 묻기라도 하면 아무개가 와서 주었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우리들은 아연질색하기도 하였습니다.

30년 목회를 한결같이 하다가 은퇴할 때도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는지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 이르러서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청빈한 목회사역이 못내 자랑스럽습니다. 열한번 째로 태어난 막내 동생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 받아 지금도 욕심 없는 청빈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정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로서 돈에 대한 생각은 몸 에 배지 않았던 자로 생각했었기에 더욱 놀라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경제의 고통이 지긋지긋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순간 새삼스레 멋진 집이 눈에 들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금 스스로 정리해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인 교훈이었을 뿐 이것이 나의 인격 자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

청빈 강조한 아버지 교훈일 뿐 내 인격 아니야 내 안에 물질의 욕망 인정하는 순간 자유 얻어

으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무엇을 했다, 남들 주먹 마련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나를 무겁게 한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남의 집이 왜 그리고 근사하게 보이며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왜 갑자기 초라해져 보이는지 그것이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집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까지도 초월하고 사는 아주 근사한 크리스천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크리스천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살면서 재물에 대한 나의 자세는 무엇이었는가, 욕심이 없는 척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온 것인가, 그토록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세상의 것 모두 초월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나니 기적을 체험했다고 인격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세상에 계시실 때 기적을 바라지는 제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모들의 상담 중 재정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그런 질문하는 사모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가 된 것이지요. 이미 목회현편이 사모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재정이 안정이 되어도 사모는 직장을 포기하기 어려워 계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후대책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고 교회 사례비에 여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더욱이 은퇴할 준비라면 누구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한지 10년, 20년이 흘러 교회를 떠날 때 아무것도 없다면 그 목회자부부는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하게 보일까요? 그러기에 요즘엔 은퇴준비를 위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욕심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기조차 싫었던 나의 속물속성을 나 스스로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롬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니”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항상 주눅 들게 만듭니다. 인격을 운운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지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세 구절은 우리에게 하려금 자유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한때는 기적을 체험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던 목회자들도 결국은 돈 무더기에 놀려 자녀들까지도 비참하게 추락하는 광경이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염려해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6.25전쟁 그 이후 가난과 배고픔의 한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교회성장과 함께 부어진 물질의 축복 때문일까요? 목회자가정의 가난으로 한이 맺혀있던 것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원인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청빈함을 가르쳐주고 가진 부모님이 떠나고 없는 현실에서 새삼 내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바라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받아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탄식되지 못한 나’라고 고백한 것과는 달리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앞에 놓고 고백한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고수니라”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주의 손(행11:19-30)찬432장

주님은 교회확장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섬리의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방인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이 고난당한 자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그 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의 손을 아무도 제 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라인이 믿음으로 주의 은혜는 범

세계성을 나타냄이 증거되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무너지지 않은 유대주의는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 무너뜨리셨습니다. 셋째, 착한 마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는 주의 은혜를 확인하고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기적보다 더 강한 섬리의 손길을 의식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를 이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화 들려진 말씀(행14:1-18)찬219장

기적 중 기적은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본문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심과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태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해는 해를 체험해야 합니다(9). 둘째, 문제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바울은 앞은뱀이를 향해 직접 맹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이 산을 향하여 저 바다에 던

지우라 명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실생활의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명하면 기이한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9-10). 셋째, 기적이 일어난 후 잘 관리했습니다. 바울일행은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자리에서 자기들도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과의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 구분이 불분명할 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수 은혜받은 증거(행16:19-40)찬343장

모든 상황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현장에 현존해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실의 굳은 장벽을 뚫고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는 지진을 통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을 묶은 차고 가 풀렸고 옥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현실이 막혔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의 높은 수를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로마시민권을 복음을 위해서

드러냈습니다. 바울의 전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간수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을 받은 자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도 평안으로 충만한 바울은 가정보다 복음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복음만이 믿는 자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게 합니다.

목 바울의 경영(행19:21-31)찬344장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 신자도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욱이 환난 중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계획을 세울 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내다보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해 원사도들과의 교류로 자기 복음의 확증을 받아 후세에게도 순수한 복음이 전해

지기를 원했고 나아가 로마의 복음화까지 겨냥한 것입니다. 세계 수도인 로마의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로 나갈 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의 경영은 하나님의 경영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자의 삶은 바로 이 경영 속에 들어있는 경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증거의 사역을 위해 꿈을 꾸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해에 복음 증거를 위한 경영을 세우십시오.

금 견딤의 본(행21:27-36)찬342장

살아있는 신앙은 견딤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는 어떻게 견디는 본을 보였습니까? 첫째, 바울이 1-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불려 극한 체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천부장의 손을 통해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손입니다(31-32). 둘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의 죄악 속에서도 견디었습니다(30).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훼방하는 죄란 외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죄로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죄입

니다.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체형을 당하고 잡혀죽을 위험 속에서도 총대에 올라 복음을 변명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음증거로 불타올랐습니다. 이중언어(헬라어, 히브리어)에 능숙한 바울은 이때를 복음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당한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처럼 견딤으로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토 사도사역의 능력(행28:1-15)찬446장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바울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 3개월 동안 보호받은 것은 복음 때문임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건과 안수할 때 치유받은 사건, 토인들의 배려로 양식을 얻는 일 모두가 하나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마침내 로마의 형제들이 마중 나온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치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본 것처럼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

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바울의 안수기도로 치유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이름의 위력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행한 바울을 본받아 교회는 가는 곳마다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능력입니다. 혈투중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됨을 믿고 모든 문제에 그 이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사역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신년 축복기도성회

기간 : 2014년 1월 16일(목, 저녁)부터
23일(목, 저녁)까지
시간 :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성경기도원(인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성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
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
미국 ORU(D.Min)

한국 CBS, TV “세상을 이기는 지혜 - 솔로몬” 강의 (2013년 7·8월, 11·12월 방영)

■ 다시보기 : www.cbs.co.kr/tv
■ 트위터 : www.twitter.com/cbssolomon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bssolomon
■ 유튜브 : www.youtube.com/cbssolomontv

2014년 월별 부흥성회 일정

1 Jan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의

미주 갈멜산기도원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www.galmelsan.or.kr



특별기고 자폐아 진단과 치료 이남경 (자폐아를 둔 어머니)

‘My son is autistic’

내 아이는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 3. 자폐아의 성장과 미래

자폐아를 둔 어머니 이남경씨

자폐를 가진 경민이가 어렸을 때는 언제 경민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될지, 친구한테 왕따는 당하지 않는지, 경민이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 경민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진로는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공부를 걱정하는 나에게 어떤 소아신경과 의사는 지금 공부까

모로서의 내 역할인 것 같다. 경민이가 성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소원한다.

한 자폐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지금 청년으로 성장한 나는 유아기 때 아스퍼거 증후군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자폐를 갖고 있는 성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뒤, 한 직장에서

페아에게 먹고 싶은 음식이나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아이가 두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 아이의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함께 두 가지 선택사항에 넣어서 “강제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자라면서 이런 훈련을 통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선택이 아닌 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나리고 권익옹호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폐를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말보다는 글로 표현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프로 스포츠 등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곤 한다. 말보다는 글로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이 아닌 말로 나를 표현할 때 더 시간 걸린다는 것을 내 직장동료들과 친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한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이들이 나를 무례하다고 여기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대학생활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나에 대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수님

부모들이 자폐자녀의 성취감 함께 만끽해야

자기권익옹호, 직업훈련 등 성인되는 준비지원

제가 아니라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라고 이야기해준 적도 있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뉴욕주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표준시험인 리젠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되고, 요즘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떤 전공이 경민이에게 맞는지, 직업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경민이의 몸도 마음도 성장하고 있다. 본인이 좋아하고 소질 있는 분야를 잘 찾아내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

정규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자기 권익옹호를 배워온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 성인으로서 자립심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혼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것과 욕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제한적인 언어기술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

어떤 학습환경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시험칠 때, 시간을 더 할애 받고 혼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서부터 나는 내게 필요한 배려를 교수님들에게 알리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했다. 자폐인으로서 대학생이 되어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욕구에 대해 주변의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지 못하면 학급에서, 사회활동에 있어 또 직장에서 생기는 오해들로 인해 여러 참여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함께 알려서 수업에 좀 더 자주 참석해야 했다. 다른 자폐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본인에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싶다. 자기 권익옹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자폐인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기 권익옹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자폐인은 더욱 독립적인 자아가 되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데이비드 멘델 박사는 유펜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대의 부교수이자 뉴욕시 한인사회 자폐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다.

자폐 연구 및 옹호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오토스피크스(Autism Speak)재단은, 뉴욕시 내 한인들이 조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펜대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과 조지워싱턴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자폐 전문가들과 협력해 뉴욕시 한인사회 자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자폐 관련 정보는AutismSpeaks.org와 한국어 페이지 에서 제공된다.

번역: 크리스티나 강-이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대 연구 조교수) (끝)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2013년은 “국제적 혼란”(The Global Disorder)의 해로 불렸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4년이 한층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잔인한 살해와 박해 이야기가 뉴스(News)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종교박해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의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서방의 정치가들과 종교인권단체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관원들 앞에 설 것을 예언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체찍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함이 아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막13:9-10).

NIV에 따르면 공회는 ‘지방 의회’로, 관장은 ‘주지사’로 번역된다. 분명 피박해자들이 주지사나 왕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피박해자들의 수난이 도리어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다. 박해 상황 속, 위기의 현대 선교가 ‘고난 중 전진’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2014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20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과 유사하다(?)

2013년 1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특집에서 2014년의 국제정치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4년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2014년이 국제적 차원에서 ‘전쟁과 갈등의 해’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1차 대전 발발 전인 19세기는 미국의 남북전쟁, 프랑스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식민지의 비극으로 대변되는 시기였다.



이후 전쟁은 없었으며 국제화가 시작되었다. 전하기, 증기선 그리고 기차의 발명으로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당시 런던사람들은 유럽 경제의 세계 통합 분위기에 젖어 전쟁무용론을 노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를 엮고 1차 대전이 발발하고 말았다.

한동안 국제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미국의 힘이 서서히 쇠퇴함으로 국제사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만한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다. 아시아에서는 극우 민족주의로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 그 불안이 한반도에까지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일본과 중국의 두 대사는 B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로 보기 싫다며 커튼을 치고 인터뷰하는 등 한심한 작태를 연출했다.

중동과 아프리카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집트는 군부가 다시 등장하는 바람에 무슬림 형제단과의 일전은 당분간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는 이달 새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국방부장관 엘시시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이 출마를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중동이나 동남아는 대부분 총구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데이비드 멘델 박사의 조언

자폐 연구전문가인 데이비드 멘델 박사는 자폐아의 성장과 미래와 관련해 두 가지를 부모들에게 강조한다. 경민 어머니가 경민이에 대해 갖는 바람은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바람과 같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자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부모가 갖는 이런 기대들은 흔히 바뀔 수밖에 없다. 자폐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여러 치료사에게 데리고 다니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협상하고, 아이가 받는 치료가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도록 보험회사와 싸우느라, 아이의 사회적, 지적 성취를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잃는 경우가 많다.

당장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있어버리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소수

한 것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아이가 갖는 성공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을 잊는다는 것이다. 자폐아들의 성공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또래 아이들의 성공과는 다르겠지만 자폐아들도 성취감을 느끼며, 성취를 위해 인내하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모들이 자폐아들의 이런 성취감을 함께 만끽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모들이 자폐아를 돌보느라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을 잊는 것이다. 자폐를 가진 이들의 기대수명은 같은 또래의 정상 발달인들과 매우 비슷하다. 최근까지 전세계적으로 자폐는 아동기에 갖는 질환으로 여겨져 왔다. 자폐 연구들은 대부분 어린 자폐아의 치료와 지원에 집중되어 왔고, 자폐아들이 자폐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삶 속에서 꾸준히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최근이다.

자폐를 가진 청년이 이 칼럼에 썼듯이 자폐인 스스로 권익옹호를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의 기회들을 주듯이,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

또한 자폐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떤 재능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존의 직업훈련이 자폐를 가진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폐인을 위한 전문 기술개발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서 꽤 성공하는 자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자폐아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때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CALIFORNIA ARTS UNIVERSITY

(School of Contemporary Music) Sevis I-20상담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대학원(실용음악)

CAU 인가(일본 Approved 대학교)

BPPE(Bureau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California Education Code #: 94866 or 94890
California School Code #: 66695760

US Federal IRS/ California State/ Fullerton City:
Non-Profit Organizations

한국을 비롯한 92개국 학력인정

State of California Secretary
Apostille processed for CAU Students

특별 수료증과정

음악치료사/ Music Therapist
상담전문가/ Counselor
찬양사역자/ Praise & Worship Leader

CAU 대학원 입학자격: 4년제 대학교 졸업자
CAU 대학원 졸업 및 학점: 2년/ 48학점
CAU 학위: 실용음악학 석사
Master of Arts in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CAU 전공과목

Musical Instruments:
Keyboard(jazz piano), Guitar, Base, Drum,
Brass, Percussion, Strings, Woodwinds,
Winds, Reeds, etc.
Composition, Film and Digital Music
Vocal
Recording
Music Business

연방정부 및 주정부 학비신청 및 보조

CAU 자체 장학금

음악경력장학금 / 성적장학금
그랜트장학금 / 선교및고역자가족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 사회봉사자장학금
장애인장학금 / 유학생장학금/ 특별장학금

*실용음악 교수 및 레슨 강사 조빙

모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자
제출처: loveck@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13-700-7575, 267-251-5511(영어) / 070-7885-0289(from Korea) / e-mail: info@cau-edu.us
Campus: 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lifornia 92833
Website www.cau-edu.us